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8일)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123년만에 바람 쐰 팔만대장경 인경본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10월 7일 장경판전 계단 아래 설치 된 포쇄소 앞에서 '2021 대장경 인경본 해바라기(포쇄)' 행사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포쇄는 책을 거풍(擧風)하는 작업으로 책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전통방법이다. 해인사가 인경본 1270권 전권을 포쇄한 것은 인경작업을 한 1898년 이후 123년만에 처음이다. 〈관련기사 6면〉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 취소하라"

조계종 환경위원회, 10월 8일 비판 성명 발표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 인근에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며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2011년 불교계와 주민들의 항의에 산림청의 승인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산림청이 재허가한 것이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무관, 이하 조계종 환경위)는 10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행환경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봉암사 인근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한 산림청에 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봉암사 인근 채석장 개발은 지난 2005년 처음 시도됐으며, 2011년에는 산림청 개발허가까지 받았으나 지역 불교계와 주민, 국회의 항의에 허가가 됐다. 특히 해당 채석장은 봉암사에서 1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채석이 이뤄질 경우 수행환경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계종 환경위와 환경전문가들은 최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채석과 발파가 진행될 경우 봉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환경위는 성명서에서 "산림청은 지난 2012년도 우리 종단과 봉암사의 요청으로 봉암사 전체 사찰림을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 으로 지정했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을 잇는 민족의 정기가 어린 곳이자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보전해야 할 대상"이라며 "산림청은 2011년 이미 승인허가를 취소한 바 있음에도 다시 채석장 사업을 재허가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종단은 지역 불교계 및 환경 단체와 연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산림청은 채석장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또한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세계기록유산지정 20주년
직지, 서지학 측면만 부각
본질인 내용 연구는 '부재'
무관심 속 탈불교화 우려
본질 알리는 노력 시급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은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불교성보다. 그럼에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쇄술 등 서지학적인 측면에서만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이라는 명칭에 가려져, 정작 성보로서 〈직지〉의 가치와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지학적 측면의 가치는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직지〉의 본질에 주목해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알리고 성보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다. 〈직지〉의 원래 명칭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법맥의 계승을 위해 선불교 요체를 추려 저술한 일종의 불교성전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20주년을 기점으로 〈직지〉를 향한 관심이 재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직지〉의 내용과 성보로서의 인식은 저조한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는 서점에서 판매 중인 출판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직지〉의 유명세에도, 우리말 번역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은 동국대역경원이 편찬한 〈직지(조계종 출판사)〉를 비롯한 서너 권에 불과했다.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서적들도 대부분 금속활자나 인쇄술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지〉를 향한 대중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직지시낭송대회' 를 개최해 온 이양호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장은 "시낭송대회 참가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직지〉에 담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로만 인식하고 있다"며 "심지어 불자들조차 〈직지〉가 불교서적이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직지〉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쇄술이나 서지학적 측면만이 부각되면서, 본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청주시가 1992년 개관한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과학교육의 장' 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속활자 전수교육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 역시 금속활자와 인쇄출판에 관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청주시가 서원대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 중인 '직지대학' 의 커리큘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직지대학의 직지지도사 양성과정은 한국 고인쇄 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를 비롯해, 한지 · 활자 · 먹, 붓 등에 관한 이론 및 기법 ·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체험 강좌가 주를 이룬다. 결국 1년간의 교육을 수료한 직지지도사들 역시 〈직지〉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직지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개인적인 원력으로 〈직지〉 강의를 이끄는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은 "세계 최고 금속활자 인쇄물로서의 가치보다 그 내용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직지〉 원본 영상 촬영에 동행했던 경험을 전하며 "현 상황은 책에 담긴 진면목은 보지 못한 채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혜원 스님에 따르면 당시 촬영팀과 관계자들은 〈직지〉에 담긴 내용을 대단히 궁금해 했으며, 이후 그 속에 응집된 선불교의 정수를 접하고 이해하기 위해 참선수행에도 동참했다. 이는 〈직지〉가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방증한다. 스님은 " '직지' 의 본질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직지〉에 담긴 사상적인 깊이를 여러나라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하는 등의 노력은 물론, 더 쉬운 언어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들이 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원 스님은 현재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의 지원으로 한 · 불전문가들과 함께 〈직지〉의 불어번역을 추진 중이다. 사회부는 "그동안 〈직지〉를 연구하고 알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주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서지학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직지〉의 본질과 성보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 성전
佛敎聖典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 권에 담겨있습니다.
동국역경원
문 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02-2264-4714 | abook@jeongjincorp.com

다음주 발행 1360호는 연휴 관계로 늦게 배송될 예정입니다. 양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 대종사
주 지 경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일동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호국불교 상징 금산사 뇌묵처영 스님 조명돼야”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 개최

‘금산사와 호국불교’주제로
발제자들, ‘처영스님’ 주목
손꼽히는 의승장이자 학승
여전히 부족한연구 아쉬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사회연구소는 10월 5일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묵처영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금산사를 중심으로 1000여명의 의승을 이끌며 활약했을 뿐 아니라, 불교사 전개과정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승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그의 생몰연도에 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심화연구를 통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10월 5일 ‘금산사와 호국불교’를 주제로 개최한 2021년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금산사의 호국불교사적 조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묵 처영 스님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뇌묵 처영 스님은 임진왜란때 활약했던 의승장으로서의 공적 뿐 아니라 학승으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지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료 및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뇌묵 처영의 의승활동과 그 공적’을 주제로 발제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뇌묵처영 대사의 의승활동 경력이나 불교사적 위상 등을 감안한다면 행장 편찬이나 문집 편찬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그의 생몰연도에 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뇌묵 처영 대사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불교사 전개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승”이라며 “특히 처영이 1635년 ‘금산사사적’을 편찬한 해안 스님의 스승임에 주목한다면 관련 자료의 부재현상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뇌묵 처영 스님이 당시 이미 고승으로 인정받았던 학승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처영 스님은 유정 스님과 함께 서산대사 제자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유정문집의 발문을 지어줄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소요 태능, 환성 지안 스님 등 금산사 고승들이 그의 영향 아래서 성장했고 당대의 문사들과 교류하며 주시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의승으로서의 활약을 넘어, 출가사문으로서 상당한 자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처영의 출가 도량은 금산사이며 그가 처음 의승 1000명을 모집해 궐기한 장소도 금산사였다는 ‘금산사지’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금산사 호국불교 성지의 정립과 계승’ 주제 발제에서 의승장 뇌묵 처영 스님의 제향과 의승군 활동의 현창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최근 금산사 경내에 건립된 처영문화기념관에 대해 “호국불교의 사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데 이어, 금산사와 처영 스님에 대한 학술연구의 확대 및 의승활동을 드러낼 추모비와 사적비 등 건립, 나아가 자료 집적과 컨텐츠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학술대회 등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가 집적되듯이 제향과 현창 사업을 전개하면 교계와 사회적 인식이 따르고 사격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해 치사했다. 스님은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된 금산사는 고려초 혜덕 왕사가 주석했던 유가종 및 화엄 사상의 중심도량이며 미륵신앙의 성지”라며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뇌묵당 처영 스님이 활동했던 호국도량이자 호남불교의 상징적인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스님들과 노묵 처영 스님의 숭고한 구국제민 정신을 후대에 올곧게 전하기 위해 처영기념관을 경내에 건립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초들과 함께한 금산사의 역사가 국민과 불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국가 위기상황을 맞아 종교적 가치와 대의적 신념 사이의 갈등을 무릅쓰고 민족공동체를 수호한 호국의승들의 헌신과 금산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치사했다.

“성범죄 전과자 이사장 용납안돼”

선학원미래포럼, 10월 5일 성명
법진 스님 이사장 재선출에 반발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법진 스님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으로 재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법진 스님의 이사장직 ·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로 구성된 선학원미래포럼은 10월 5일 ‘성범죄 전과자 최종진(법진) (재)선학원 4선 이사장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창건주 · 분원장은 최종진(법진)을 결코 선학원 이사장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했다.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여직원 성추행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진(법진)이 3연임의 이사장 임기를 채우더니, 이제 또 다시 4선의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이런 상식을 파괴하는 해괴한 일이 청정승풍을 수호하고 ‘정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선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최종진(법진)은 그를 선출한 무리들의 두목은 될지언정 결코 (재)선학원의 이사장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따르면 선학원은 정관상 임원 자격을 ‘덕망이 높은 승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명백하게 정관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승려관리규정’에는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제적, 자격정지 등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승려법’에는 ‘파렴치범의 전과자’는 승려자격에 결격사유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창건주 권한을 박탈당하고 분원장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들은 “원천적으로 승려자격이 없고, 창건주나 분원장조차 할 수 없는 성범죄 전과자가 어찌 이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데 이어, “선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최종진(법진)은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인적쇄신은 성범죄자 전과자를 징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창건주 · 분원장은 최종진(법진)이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선학원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법적, 행정적 조치는 물론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9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前이사장 법진 스님을 2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송지희 기자

사회적 물의 일으킨 법인에 시정명령 가능

조계종, ‘법인법’ 개정안
총무원장 행정처분 강화

종단등록법인에 대한 조계종의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종단 위상을 실추시킨 종단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단등록법인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시정명령 후 1개월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적용범위는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해 설립한 법인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련해 설립한 법인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이다. 개정안은 △종단 소속 승려로 구성돼 있고 종단의 사찰 또는 승려가 양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단 사찰과 종무기관은 미등록법인에 대해 예산 및 행정지원 등 일체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권리제한 조항도 신설했으며, 부칙으로 개정안 공포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종단 절차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키로

조계종에 사과공문 발송
‘천진암성지’ 명칭 중단

경기도 광주시가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던 ‘천진암 성지 광주순례길’ 명칭사용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를 약속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광주시는 10월 5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공문을 보내 종교편향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 문제가 됐던 ‘천진암성지 광주순례길’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광주시의 ‘천진암 성지 광주 순례길’ 사업추진과 관련, 광주시에서 해당 사업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명칭 수정 및 사업 재검토 결정을 해준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단은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우수한 전통문화콘텐츠가 바르게 해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종교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정책이 초래하는 소모적인 국민갈등을 예방할 기구와 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현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해당 순례길이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과 불교계가 운영해온 나눔의 집을 포함, 이를 ‘천진암성지 광주순례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공식적인 사과 및 해명, 본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공문으로 요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 주 명 성
율 주 일 진
학 장 진 광
주 지 운 산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의료비 · 국민연금 지원 등 기초복지 '탄탄'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시행 10주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1월 25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성과 등 주제로 토론회 개최
중앙 · 교구본사 역할 등 모색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10년간, 입원진료비 · 요양비 지원규모가 1410건, 13억 699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20년 기준으로 2963명에게 24억 4230만원 상당이 지원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10월 1일 승려복지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10년의 성과는 입원진료비 · 요양비 지원제도의 안착으로, 2011년 첫 지원건수 2건에서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289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병고로 고통 받는 스님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종단 승려복지의 기틀을 다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2015년부터 지원대상이 만65세 이상 무소득 · 무소임자에서 구족계 수계자 전체로 확대되면서 지원인원과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승려복지회는 "지원인원보다 지원건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 스님이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경우로 향후 장기입원스님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년부터는 혜택의 범위를 재차 확대했다. 동국대의료원 산하병원에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으며, 기존 시설입소 요양비만 지원했던 것에서 나아가 재가요양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외래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도 시작했으며, 만65세 이상 스님에 대해서는 임플란트와 틀니와 관련한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유의미한 성과로 꼽힌다. 국가제도를 활용해 스님들이 최소한의 지원으로 노후까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지만, 스님들의 경우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컸다. 원불교와 가톨릭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는 반면, 조계종의 경우 2011년 조사 당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승려복지회가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17년 498명, 2018년 278명, 2019년 293명, 2020년 273명의 스님이 신규로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 4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스님은 2963명, 지원규모는 24억 4230만원 가량이다.

승려복지회는 점차 확대되는 지원규모를 감안한 재정적인 토대마련을 위해 2020년 7월 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 종단 소속감 고취는 물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결단이었다. 시행 전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년새 참여율이 90%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종단 승려복지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를 방증했다.

승려복지가 교구본사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제도가 이뤄진데 비해, 현재 전국 각 교구본사 차원에서 승려복지제도를 운영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직지사와 선운사, 화엄사와 해인사, 봉선사 등이 승려복지규정을 제정해 운영중이며, 이가운데 일부는 승려복지 전담직원을 임명하는 등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신흥가와 고운사, 해인사, 봉선사가 제적승려를 위한 수행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주사와 월정사, 마곡사, 화엄사는 선방수좌스님들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하는 등 각기 상황과 여건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는 그간 총무원장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돼 온 종단의 숙원과제였다"며 "제33대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당시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종단 핵심사업으로 시행된 후 제34대 총무원, 제35대 총무원, 제36대 총무원을 거치면서 제도 안정화와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승려복지회는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법석이 될 전망이다.

"문화재관람료 '통행세'로 매도"

조계종, '봉이 김선달' 발언한 정청래 의원에 공개사과 촉구
불교계 · 사찰 명예 훼손 심각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 '봉이 김선달' 등의 발언으로 매도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개 참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빈축을 샀다.

조계종은 10월 8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라거나 '봉이 김선달'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교계와 사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는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정청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관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시발점은 전통사찰들이 국가에 의해 국립공원으로 강제편입되면서부터다. 국립공원 지정의 근거인 공원법 제정에 앞서,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고 사찰은 이를 근거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대다수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논의절차 내지 승인 없이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로 국립공원에 편입 당했다. 이후 현재까지 약 60여 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그럼에도 정청래 의원은 2007년 정부가 불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선언했고 그로 인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불교계로 전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양 자화자찬하기까지 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참회하라"고 요구했다.

송지희 기자

동남아 사찰 4차 긴급지원…누적 수혜사찰 28곳

로터스 월드와 전국비구니회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에



동남아 사찰긴급지원캠페인 4차 지원대상인 미얀마 쉐야따나 사찰.

코로나19 사태로 탁발이 어려워진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의 사찰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지난 6월부터 전개한 '동남아시아 사찰긴급지원캠페인'이 한국불자들의 온정을 토대로 최근 4차 지원을 완료했다.

로터스월드는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안 미얀마, 라오스 사찰 4곳을 대상으로 4차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4차 지원은 쌀 220포대, 라면 200박스, 채소 100kg, 간장, 설탕 등 각종 소스류 20박스, 비누 20박스 분량이다. 현재 기준 해당 캠페인을 통해 누적된 수혜사찰은 3개국가 총 28곳, 수혜인원은 총 4,700여명(캄보디아 1,000여명, 미얀마 1,600여명, 라오스 2,100여명)이다.

미얀마의 경우 양곤 지역의 데진예쪼(Thazin Yay Kyaw) 쉐야따나(Shwe Ya Ta Nar) 사찰을 지원했다.

데진예쪼 사찰은 비구 · 비구니 스님 80여명과 50세 이상 일반 수행자 25여명 등 총 10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쉐야따나 사원은 초 · 중 · 고교 과정 동자스님 90여명과 교사 등 모두 110여명이 생활하는 사원학교다.

로터스월드에 따르면 사찰지원캠페인 대상국가 가운데 미얀마 사찰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에 군부쿠데타 이후 혼란이 가중되면서 사찰의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사찰은 대중 수가 많고 운영하는 사원학교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찰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의 지역조사 결과 사찰 내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동자스님 대부분은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터스월드는 "사찰 내 동자스님 수가 많은 양곤 지역 사원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미얀마의 경우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사찰이 운영하는 사원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등 미얀마 교육 체계의 한 축을 사원학교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불자들의 보시가 줄어 사원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워지는 등 미얀마 교육체계의 근간이 흔들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라오스의 경우 방비엥 지역의 왓 폰 펭(Wat Phone Pheng), 왓 켓코 바나람(Wat ketkeo vanaram) 사찰을 지원했다. 이 두 사찰은 방비엥 지역의 중소규모 사찰로 대형사찰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왓 폰 펭 사찰의 경우 로터스월드가 지원한 식료품을 주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된 같은 지역의 소규모 사찰에 다시 나누는 등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캠페인은 기간 특정 없이 지속되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725-4277, 농협 301-0059-6339-11 예금주 로터스월드

송지희 기자

법원,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부당"

대전지법, 10월7일 판결
사노위, "1심 승소 환영"

법원이 성전환을 이유로 故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육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환영입장을 발표하고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혐오를 멈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10월 7일 변희수 하사가 생전 육군에 제기했던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성의 신체 일부분의 유무를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노위는 "변 하사가 강제 전역 된지 624일만의 판결"이라며 "변희수 하사를 군대에서 아낀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희수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노위는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육군이 1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국회 역시 곳곳의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육군에 대해 즉각적인 항소포기를 통해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한 과오를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변희수 하사도 이번 재판 승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재차 애도의 뜻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Since 1972 80쇄



불교 신행의 길라잡이
불교성전
「법정스님」이 엄선한 팔만사천 부처님 말씀이 한권에 담겨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나누는 부처님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드립니다.

법보시〈불교성전〉
정가 ~~42,600원~~ → 39,000원

법정스님의 〈불교성전〉이 50년 만에 다시 출간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글 문장으로 읽기 쉬워진 〈불교성전〉을 법보시하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동국역경원 〈불교성전〉의 새로운 기획!
교계 처음 제작, 〈야전 불교성전〉 & 읽으며 따라쓰는 〈불교경전 필사본〉



〈불교성전 필사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제작
190×260mm
상권 288쪽, 하권 360쪽
각 권 값 15,000원
세 트 값 30,000원

〈야전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지음
125×187mm
824쪽(양장본)
값 24,000원

법보시 불교경전 세트


SET1 〈불교성전 + 상월선원〉
정가 ~~58,600원~~ → 53,400원
〈불교성전〉과 풍찬노숙 천막결사, 한국불교의 희망을 말하는 〈상월선원 – 천막결사 90일 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SET2 〈불교성전 + 선종사부록〉
정가 ~~60,600원~~ → 55,200원
〈불교성전〉과 참선이 무엇인지, 선수행이 무엇인지를 찾는 수행자와 일반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 혜거 스님의 〈선종사부록〉을 담았습니다.


SET3 〈불교성전 + 불교입문〉
정가 ~~64,600원~~ → 58,800원
〈불교성전〉과 동국대 불교대학이 불교 입문자들을 위해 새롭게 펴낸 불교학 정통교과서 〈불교입문〉을 담았습니다.

세트구성 ① 〈불교성전〉과 다른 추천도서로 세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② 〈불교성전〉과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가능합니다. ex)염주, 반지, 공진단, 학교기념품 등 ③ 선물하시는 분의 인사말 카드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 판 문 화 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주문전화 02-2264-0142 주문팩스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코로나 우울, '사찰 국화'보며 잊어요

전국 사찰, 10월 국화축제 시작
대표사찰 조계사 11월까지 진행
봉은사·불광사 등 도심사찰 확대
해인사·통도사 등도 전시전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월을 맞이한 전국 사찰에서 국화축제가 한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름을 국화향기로 잠시 잊을 수 있는 기회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0월 6일 제11회 국화향기나눔전을 개막했다.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국화향기나눔전에는 공룡 형태의 대형조형물을 비롯해 아기공룡 둘리와 친구들, 공작과 북극곰 등 다양한 캐릭터 국화조형물이 선보였다. 또 연인들을 위한 국화하트길을 비롯한 야외 무대도 함께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사중 소임 스님들과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조계사는 함평군이 운영하고 있는 함평영화학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적은 국화를 불단에 공양하며 국난 극복과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조계사 국화축제는 11월말까지 진행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2011년부터 시작된 조계사 국화축제는 도농상생의 모델"이라며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국화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불광사(주지 진효)도 10월 2일 제2회 국화향기나눔전 '단풍 드니 국화 피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은 주지 진효 스님의 인사말, 국화 서원지 작성 및 화분 이운,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대중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은 국화서원을 불단에 올렸다. 불광사 제2회 국화향기 나눔전 '단풍 드니 국화 피다'는 11월 22일까지 불광사 본당 앞마당과 대웅전에서 진행된다.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은 인사말에서 "역경 속에서 국화를 피우는 자연의 이치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고난을 헤쳐 나가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격려를 전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개산대재를 맞아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국화대축제를 펼친다. 최근 명상길을 연 봉은사는 국화 장엄으로 함께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봉은사는 국화축제를 시작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봉은사 개산대재 행사는 10월 14일 49일 기도 회향 의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국화축제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신도회 행복나눔바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이후로 연기됐다. 국화를 비롯한 꽃무릇이 만발하는 부도전 뒤는 오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는 '국화향기 그윽한 해인사'를 주제로 10월 2일 개산대재를 개막한데 이어 10월 31일까지 국화축제를 진행한다. 해인사 국화축제에는 가야산 단풍과 홍류동 송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형형색색의 국화 1,219본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의 장엄을 본딴 국화모형물이 함께 전시된다.

해인사 측은 "도량이 희망과 치유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국화 향기가 그윽하게 물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9월 18일 개산대재를 개막한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경내를 장엄하는 국화전시전을 개최한다.


2021 조계사 국화축제 현장.

'대행사상과 한마음과학' 한마음과학원 학술대회

10월 16일 안양본원서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은 10월 16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대행사상과 한마음과학'을 주제로 제6회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대행 사상의 인문학적 전망 Ⅰ·Ⅱ'을 주제로 열리는 제1, 2섹션에서는 △'켄 윌버와 대행 선사 수행관 비교 고찰'(정상만, 한마음과학원) △'선법가를 통한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박소진, 신한대) △'대행 선사에 있어서 연구의 개념: 한마음 연구 방법론 정립을 위한 시론'(김영래, 한마음과학원) △'교사 교육 개선에 관한 담론 고찰'(안정현, 공주대)이 발표된다.

'대행 사상의 사회·자연과학적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3섹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연구'(박지영, 한마음과학원) △'천체물리학 관점에서 연구한 대행 선사 과학 법문과 한마음 과학'(최상욱, 한마음과학원)이 대중에게 소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줌으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접수를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서 받고 있다. 학술대회 현장은 한마음과학원 유튜브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저소득층돕기 '본격화'

11월 30일까지 모금캠페인
10월 1일에는 글로벌 협약



국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글로벌 장기기증과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 돕기로 영역을 본격 확장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30일까지 '국내외 취약계층 후원물품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연말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 가장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여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정 나누기 행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인 지난해에는 쌀 1,000kg, 물티슈 100박스, 기저귀 200박스 등 가수 겸 배우 수지 양의 2000만원 상당의 후원을 전달했다. 당시 배우 수지 씨의 팬클럽 '배꽃마을'도 기부에 동참했으며, 애경산업에서 케라시스 샴푸와 린스 세트 100세트도 후원했다.

기부물품은 의류와 의료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으로 의류는 새제품과 이월제품 모두 기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일 본부 사무실에서 (사)글로벌생명나눔(이사장 신언항)과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품 지원 약정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일면스님과 김정남 글로벌생명나눔 대표,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생명나눔은 저개발국가에 의료 인프라 지원과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한 국제 구호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글로벌생명나눔은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사업 공동 진행 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일면 스님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지원받은 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펭수, 묵언 수행 성공했을까

자이언트 펭TV, 진관사 템플스테이 체험편 공개

EBS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가 템플스테이와 묵언 수행을 체험했다.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는 10월 1일 진관사 템플스테이 체험편 '부리 한번 다물어봤습니다'를 공개했다.

지난해 6월 선무도 본찰 골굴사에서 선무도를 배웠던 펭수는 진관사에서 "새로운 권법을 배우겠다"고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템플스테이였다.

템플스테이를 위해 환복한 펭수는 진관사 템플스테이 국장 선우 스님을 만나 묵언 수행을 권유받았으며, 이미 앞서 묵언 수행을 하고 있던 진관사 수행승 호종이를 만났다.

펭수와 호종이는 진관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리고,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에게는 비질 울력을 배웠다. 에피소드 내내 묵언 수행을 위해 펭수와 호종이



사진=자이언트 펭TV 캡쳐

가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템플스테이 종료 후 묵언을 마친 펭수는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펭수의 깨달음에 완전 공감", "펭수 덕분에 진관사도 알게됐어요"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신성민 기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가족교육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보호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위한 가족교육 '맘이 모이는 스터디'(이하 맘모스)를 진행한다.

'맘모스' 교육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정보를 공유한다. '맘모스'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지원 및 도전 행동 교육으로 총 8회로 진행된다.

각 회별로 70여 명이 신청했으며, 특수학급 교사, 직업재활학과 교수, 종합복지관장 등 발달장애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전문 강사들이 나서 교육할 예정이다. (02)3667-7979

노덕현 기자

2022년 파송 및 2021년 예비

남·여 군승 장교 요원 모집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해·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포교에 진력할 남·여 예비 군승 장교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 사미 / 사미니계 이상의 승적을 소지한 스님
- 4년제 대학 졸업(예정) 이상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년도 연령이 만 35세(기준: 만 35세 되는 해 1.1일 이후 출생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 접수처 : 2021. 10. 31(일) 한 / 군종교구 종무실
- 보내실 곳 : (043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길 46 (국방부 원광사 내) 군종교구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교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 02-797-7266 / 군종교구 종무실

불기2565(2021)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10월 3일 19교구본사 화엄사 당도해

전날 숙영지 사성암서 새벽 3시 출발
밤엔 습기와 추위, 낮엔 가을볕·더위
쉽지않은 여건서 묵묵히 발걸음 지속
지나는 사찰마다 '문화행사'로 한마음
고통받는 국민에 희망 전하는 법석돼

구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자공)에서 입재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며 이어지고 있다. 순례 3일차인 10월 3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 당도한 순례대중은 느리지만 묵묵한 발걸음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8개 순례조를 중심으로 지원단까지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순례단은 새벽 세시 경, 칠흑 같은 어둠을 도반으로 순례를 시작해 새벽 짙은 안개를 뚫고 한걸음한걸음 나아간다. 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길에서 공양을 하며, 지나는 사찰 곳곳에서 불자와 지역민들을 만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밤에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인 텐트에서 숙영하며 내내 새벽 이슬과 추위에 몸을 내맡긴 채 하루하루 이어지는 순례다. 낮에는 뜨거운 가을 햇볕이, 밤에는 습기가 순례대중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만 묵묵히 발걸음은 지속된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거쳐가는 지역 곳곳에서 지역대중, 그리고 문화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하루 전날인 10월 2일 사성암 아래 주차장 숙영지에서는 '길 위에서 길을 찾다' 공연이 진행됐다. 20분 남짓 짧은 공연이었지만 순례대중 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사성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소박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 주차장 내 텐트를 치고 숙영한 대중들은 10월 3일 새벽 2시 30분 잠에서 깨어 순례를 시작했다. 3시경 간단한 입재식으로 하루일정을 점검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하루 25km, 차로 이동하면 30분으로 충분한 거리지만, 묵언 속 한걸음한걸음으로 나아가는 순례단에게는 6~7시간 가량 소요되는 긴 코스다,

새벽 3시 숙영지를 나선 순례단이 구례 화엄사에 당도한 시간은 오전 10시경. 주지 덕문 스님이 일주문에서 순례단을 마중했다. 일주문을 지나 1km가량 이어진 순례길에는 화엄사 대중들이 나와 박수로 이들의 원력과 노고를 격려했다.

화엄사는 순례대중의 원력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화엄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를 '화엄, 길 위에 서다'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 여파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올해 역시 아름다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 29일 10여년의 보수로 재단장을 끝낸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의 첫 대중참배도 순례단의 몫이다.

화엄사 조실 명선 대종사는 화엄사 대중을 대표해 순례단을 환영했다. 명선 대종사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역사적 전통을 잇는 순례,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순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화합을 발원하는 순례"라며 "의미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월선원 만행결사로 시작된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이 이번 순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화엄사 역시 최근 사사자삼층석탑 복원불사를 회향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인연이 지중하다. 화엄사와 순례단의 인연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덕문 스님도 "아름다운 가을의 한 가운데서 열린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날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특히 사사자삼층석탑 복원 불사 후 첫 단체순례로 의미를 더한다"며 "순례단 전원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건강하게 원만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례 3일차인 이날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원력을 보탰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수행의 길을 걸으며 마음자리를 돌아봤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마치 국난과 같기에, 국민들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순례의 원력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도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 속에 '화쟁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화엄사에 당도해 각 각황전을 비롯한 전각들을 참배한 순례대중들은 오후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화엄음악제에 함께했다. 화엄사 경내를 장엄한 괘불 앞에서 진행된 음악제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순례대중의 발원을 선율에 실어 널리 확산시키는 매개가 됐다는 평가다.


순례 3일차인 10월 3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 당도한 순례대중은 느리지만 묵묵한 발걸음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사성암 숙영지에서 진행된 공연.


화엄사에 당도한 순례단.


주호영 · 이원욱 의원도 참석했다.

국민에 치유·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화엄사, 10월 1~3일 괘불재 · 음악제 등

'화엄, 길위에 서다' 주제로
마지막날 천리순례단 함께

'화엄, 길 위에 서다'를 주제로 3일간 청명한 가을하늘을 장엄한 화엄문화축제가 성료했다. 올해 화엄문화축제는 마지막날 화엄사에 당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 한 문화법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은 10월 3일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법석인 '화엄음악제'를 개최했다. 음악제는 콰르텟 코아모러스(Quartet Coamorous)의 인트로 연주로 무대를 연 화엄음악제는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과 국악인 박정선 명창의 단사 사철가와 남도민요, 여성전통 타악그룹 도도의 퓨전 타악, 팝페라그룹 아띠의 중창, 라파우사 뮤지엄 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소찬휘으 특별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으로 이어졌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원력을 모아나가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도 이날 음악제에 함께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2600년전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진리를 전하다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중흥 원력을 잇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를 순례 중"이라며 "이번 화엄음악제에는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423km의 대장정 중 3일차에 화엄사에 도착한 천리순례단이 함께해 더욱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화엄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선사하고 구례군민에게는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엄'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를 상징하는 장군 죽비를 덕문 스님에게 전했다.

한편 화엄문화축제는 10월 1일 화엄숲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인문학 강의와 버스킹 공연, 영화상영에 이어, 10월 2일 '화엄사연산회괘불탱'을 경내 앞마당에 장엄하는 괘불재를 거행했다. 그간 화엄사는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로 모사본을 내걸어 괘불재를 봉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괘불재 당일 진본을 모셨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문화축제를 통해 구례군민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아 서로 화합하는 화엄법계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깊은 가을밤 행사를 마련해 주신 화엄사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구례=송지희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화엄음악제.


회주 자승 스님이 덕문 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했다.

www.palgwanhoe.or.kr
[2021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임]
八關會 팔관회
신라 때부터 꽃피운 천년의 불교문화축제
• 선재동자 수계법회 오후 1시
• 호국영령위령재 오후 2시
• 호국기원법회 오후 3시
• 팔관재계수계법회 오후 4시
2021년 10월 16일(토)
금정총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지역 채널 안내
• 부산/울산/경남지역 케이블TV
(티브로드, CJ헬로, HCN, 울산방송, 하나방송, 서경방송)
olleh 233번 | b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수계법회[비대면] 동참 문의 051) 867-0501~3
유튜브 시청 안내
BBATV 바로가기 QR코드
YouTube
부산불교연합회 유튜브채널
2021팔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0월 16일(토) 오후 4시
BTN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주최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1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BTN불교TV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

대장경 인경본, 123년만에 대중에 선뵈다

해인사 10월 7일 전통보존행사 '포쇄' 진행

판전 보관 인경본 1270권 대상
전권의 포쇄는 123년만에 처음
개산 1219주년 기념 일환 개최
전통방식 재연, 보존중요 강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10월 7일 장경판전 계단 아래 설치 된 포쇄소 앞에서 '2021 대장경 인경본 포쇄(해바라기)' 행사를 개최했다.

포쇄는 책을 거풍(擧風, 바람을 쐬는 것)하는 작업으로 책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전통방법이다. 해인사는 법보종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대장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포쇄 행사를 개최했다.

대장경 인경본 포쇄행사는 먼저 부처님을 찬탄하고 귀의하는 고불로 시작됐으며 대중 스님들의 포쇄선언 후 인경본 출납 및 이운으로 이어졌다. 장경판전 수다라장 다락에서 장경판전 계단 앞에 설치 된 포쇄소로 대장경 인경본이 전달됐다. 이운된 인경본은 총 1279권으로 100여명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이운에 동참해 총 30분만에 완료했다.

포쇄현장에 쌓인 인경본은 방장 원각스님과 주지 현응 스님 등 해인사 대중스님들이 일일이 점검했다. 이후 바람과 햇볕을 쐬는 포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포쇄작업 후에는 인경본을 다시 포장해 수다라장 다락에 다시 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10월 7일 장경판전 아래 포쇄소에서 '2021 대장경 인경본 포쇄'를 진행했다.

포쇄에 대해 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은 "포쇄는 팔만대장경 인경책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동시에 1898년 팔만대장경 인경 당시 대장경판 보존 상태도 살펴 볼 수 있는 행사"라며 "아울러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의 마음에 새기는 의식으로 경전을 직접 보면서 마음으로 읽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목판 뿐 아니라 인경을 한 인경본도 보관되어 있다. 그 중요성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인사 포쇄는 〈동문선〉 등에 해인사 외사고에 고려실록이 보관돼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포쇄했다는 기록과 칠월칠석 전통문화행사로 포쇄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마련됐다. 해인사는 2017년에도 포쇄를 진행한 바 있지만 인경본 전권을 포쇄한 것은 123년만에 처음이다.

해인사 장경판전 수다라장에 보관 중인 대장경 인경본은 1270권으로 1898년 조선시대 상궁 최씨 발원으로 4부가 인경돼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에 각각 1부씩, 나머지 1부가 전국 사찰에 나뉘어 봉안됐다.

포쇄는 과거 사찰 또는 사원, 사고, 민가 등에서 행하던 전통방식의 보존의식으로 장마철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옷이나 책 등을 밖으로 꺼내 빛을 쬐고 바람에 말리는 행사다. 부식과 충해를 방지시켜 오랫동안 서적을 보존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다.

한편, 이번 포쇄는 해인사 개산 1219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해인사는 포쇄와 더불어 개산 1219주년을 기념하는 '2021 국화향기 그윽한 해인사 개산대재 법회 및 문화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 10월 한달간 해인사에서는 '개산 축하 장엄등 및 국화 전시', '해인사 주석 역대 고승 특별전', '개산 역대 조사 다례재', '보살계 수계대법회'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kr)에서 확인가능하며 유튜브 '해인사 TV'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풍경소리 지하철서 학교로 문화포교 확장

해동중 · 금정중 등 종립학교 법음게시판 부착


전국 지하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게시판을 부착하고 법음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가 종립학교로 문서포교 영역을 확대했다.

전국 지하철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게시판을 부착하고 법음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회장 목종)가 문서포교 영역을 학교로 확대했다. 풍경소리는 10월 1일 해동중학교와 금정중학교에 문서포교 게시물을 부착하고 도서 〈풍경소리〉를 기증했다.

풍경소리 회장 목종 스님은 해동중학교를 방문해 게시판이 걸려있는 장소를 둘러보며 문서포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목종 스님은 "풍경소리는 법음을 전하는 모임이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 그들의 삶에 등불이 되고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종립학교에 온 학생들은 우선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한다. 풍경소리 게시판 내용은 딱딱하지 않고 수준 높은 서각 작품이 함께 실려 거부감이 없다. 앞으로 문서포교 확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할 것이며 학교 뿐 아니라 불자들의 가정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섭 해동중 교장은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을 위한 큰 마음을 내주시고 게시판과 책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좋은 책과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에 지혜가 전달되길 바라고 오고가는 학생들의 마음에 불심의 씨앗이 심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풍경소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비영리 포교단체이다. 일반시민에게 '쉽고 친숙한 불교'로 다가가고자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쉬운 언어로 담아 게시물을 제작한다. 게시물은 전국 지하철과 철도역 2500여 곳에 설치됐고 매월 정기적으로 교체해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서장사 · 울산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협약



울산 서장사와 울산불교환경연대는 10월 2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울산 서장사(주지 불성)와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10월 2일 서장사 대웅전에서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서장사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빈그릇 운동 등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들을 준수하고 녹색사찰로 활동을 이어간다.

협약식에는 서장사 주지 불성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백련사 천도 스님, 임신규 신도회 회장, 고수옥 부회장 외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협약식은 주지 불성 스님과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환경교육 및 협약서 서명, 녹색사찰 현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불성 스님은 "서장사가 녹색사찰로 인연을 맺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기 위해서다"며 "불편하지만 생명을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미래 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협약식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하나에도 세계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며 "녹색사찰로서 앞으로 자연보호와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 노력해주는 불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표충사,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 봉행

호국성지 표충사(주지 진각)가 10월 6일 표충사 일원에서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향사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울산 월봉사 보화 스님, 청하암 자허 스님, 표충사 박물관부관장 여서 스님, 이원효밀양유림회 회장, 김명환 밀양 향교 전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진각 스님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념하고 그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향사를 시작으로 문화축제를 연다. 전시 및 학술대회 등 여러 행사를 통해 사명대사의 큰 공적을 널리 펼치겠다"고 말했다.


호국성지 표충사가 10월 6일 표충사 일원에서 '제556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했다.

한편, 표충사는 10월 6일부터 29일까지 '호국불교문화축전'을 개최한다. 문화축전은 10월 16일 사명대사 다례재 및 전통호국음악 공연,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의 호국성지길 순례행사로 진행된다.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명대사의 호국정신, 세상을 치유하다'란 주제로 특별전도 진행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영불교聯, 장애인시설 도색

통영불교연합회(회장 종묵)가 10월 4일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이모이는 샘'에서 페인트 도색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는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사단법인 나누우리 봉사단, 태고종 경남교구, 통영 보현사, 통영불교거사림회, 통영해양경찰 봉사단, 통영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주관했으며 통영불교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 김연정 사랑이모이는샘 원장, 원지후 통영대학생 봉사단 회장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통영불교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저희 통영불교연합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위해 앞으로도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불교거사림회 지도법사 회장 묵원 스님은 "사랑이모이는샘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국내·외 취약계층 후원물품 지원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지원 사업 모금 캠페인
지원대상 국내·외 취약계층
기 간 2021년 11월 30일 (화)까지
기부물품 의류(새 제품, 이월 상품 모두 환영), 의료(용)품, 생활용품, 식품(컵라면, 통조림) 등
★업체 기부 대환영!
후원계좌 농협 053-17-001346 (예금주 : 생명나눔실천본부)
문 의 02-734-8050 / www.lisa.or.kr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29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30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치인리)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전송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 ~ 오후 6시)

일상 속 참선으로 수행대중화에 일익

창립 10주년 맞은 봉선사 참선반 '선우회'

남양주 봉선사, 10월2일 선우회 10주년 기념법회 "행복 위한 수행" 당부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봉선사 선우회 회원들이 10주년 기념법회서 수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남양주 봉선사 신도들로 구성된 참선반 '선우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계 수행풍토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참선수행을 중심으로 50여 명의 재가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또 때로는 안거에 들며 꾸준한 정진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초격)는 10월 2일 경내 청풍루에서 봉선사 참선반 '선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 10년전 선우회를 창립한 정수 스님, 본사 교구장 초격 스님을 비롯한 봉선사 신도회 이도피안 회장과 10년간 선우회에서 활동했던 회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초격 스님은 축사를 통해 "봉선사 선우회는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동안거, 하안거와 나아가 각자가 주어진 시간에 수행을 지속해오면서 참선수행을 대중화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며 "불교에서 어떤 것도 수행 아닌 것이 없지만 참선 수행이야말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선우회는 참선수행 뿐 아니라 각종 봉사에도 솔선수범하여 참여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그간의 활동을 격려했다.

10년 전 선우회 창립을 주도했던 정수 스님은 "하안거를 해인사 선원에서 지냈는데 어릴 적 뵈었던 큰스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부도에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었다. 이곳 봉선사에 오면 조실 스님과 회주스님 등 어른스님들을 뵐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다"며 "한 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다. 바로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고요하게 간직하면서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참선이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된다.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마음부터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10년 전 선우회를 발족한 본래 뜻이기에, 항상 고요함 속에 자신을 다스리는 참선수행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봉선사 신도회 이도피안 회장은 "10년 전 시민선방을 열고 손수 지도해주시며 선우회의 기초를 만들어 주신 정수 스님과 선우회가 지금까지 수행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주지 스님. 지도법사스님들께 한없는 고마움을 전한다"며 "참선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고, 잠시 나를 내려놓고 어지러운 마음을 쉬게 해주고,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수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참선이야말로 우리 신도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이며 행복의 원천이 돼줬다"며 "지난 10년간 참선과 용맹정진으로 참선 수행을 대중화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준 선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란다. 수행 정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도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선혜원 선우회장은 "앞으로도 스님들과 신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봉사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회주 밀운 스님이 직접 법문했다. 밀운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처음 5비구에게 설법을 하실 때 허공을 가리키며 '진공묘유'라고 말씀하셨다"며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공에도 존재가 있음을 현재의 과학이 밝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께서 본래의 본성 자리는 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바로 '불생불멸'"이라며 "본래 본성은 현대과학이 말하는 원소와도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항상 부처님의 '자리이타행'을 본받아 부처님처럼 산소의 근원인 물과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선우회원들은 봉선사 보림선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수 스님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함께 광릉수목원 숲길을 1시간여 포행하며 지난 10년의 수행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정진을 다짐했다.

환경본찰 현덕사 '동식물 천도재' 봉행

10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청우 스님 법문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개산 22년 기념 법회 및 동식물천도재'를 봉행한다.

강릉 현덕사는 개산 이후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 매년 동식물천도재를 열어오고 있다.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60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9.7%로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한해 동안 버려지는 동물은 12만 8787건으로 식용이나 의료계 실험용으로 희생되는 동물도 상당수에 달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릉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은 "희생된 동식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매년 동식물영가의 위패를 모시고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생명을 잃은 동식물의 영가를 천도하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산 기념법회와 3층 쌍탑(雙塔) 봉안식도 진행된다. 3층 쌍탑은 불자 서예가인 솔뫼 정현식 작가(솔뫼서예연구소장)가 탑기(塔記)를 짓고 썼다.

정현식 작가는 탑기에 "탑을 세운 오늘부터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빛나며 법의 바퀴가 쉬지 않고 구르길 기원한다. 지혜가 더욱 빛나고 수승하며 인연된 신도들이 웃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등명낙가사 회주 청우 스님이 법문한다. (033)661-5878 노덕현 기자


현덕사 동식물천도재에서 위령의식을 올리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제3회 광주불교문화사진전시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는 10월 1일 제3회 광주불교사진전을 개최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10월 1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제3회 광주불교사진전시회'를 개막하고 사진문화기획단 회원 16명이 참여하는 단체사진전을 진행했다.

8일까지 이어진 사진전에는 회원들이 자유주제로 산사의 풍경, 동물, 반영, 꽃, 가족, 취재현장 등에 걸친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했다. 1일 개막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월인 스님을 비롯해 사진문화기획단장 무진 스님, 윤혜숙 사진작가, 광주사진협회 임원 등이 참여했다.

도성 스님은 봉행사에서 "한해의 결실을 보는 가을에 접어들어, 푸르렀던 산과 들이 단풍과 열매로 가득하다. 그런 계절에 사진문화기획단의 결실을 보는 사진전시회를 갖는 것 또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큰 뜻을 깊이 기억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법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문화기획단은 내년 촬영주제로 '광주지역 사찰의 풍경'을 선정, 차기 사진전을 준비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응공조계종 관음사 보살 수계 법회 봉행


두가 부처님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만큼 삼독을 여의고, 삼업을 멀리하는 현명한 불제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 관음사(주지 경봉)는 10월 3일 관음사서 천수천안관음보살, 신중탱화 점안식과 구족계, 산림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원로의원 홍원 스님, 수덕 스님, 법등 스님과 혜인 스님, 해진 스님, 경암 스님, 원각 스님, 득운 스님, 동화 스님, 지암 스님, 수암 스님 등 소임 스님, 정용영 관음사 신도회장, 문지현 관음회단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증명법사 법운 스님은 "관음사 불자들은 모

손문철 대구지사장

천태종 대성사 창립 54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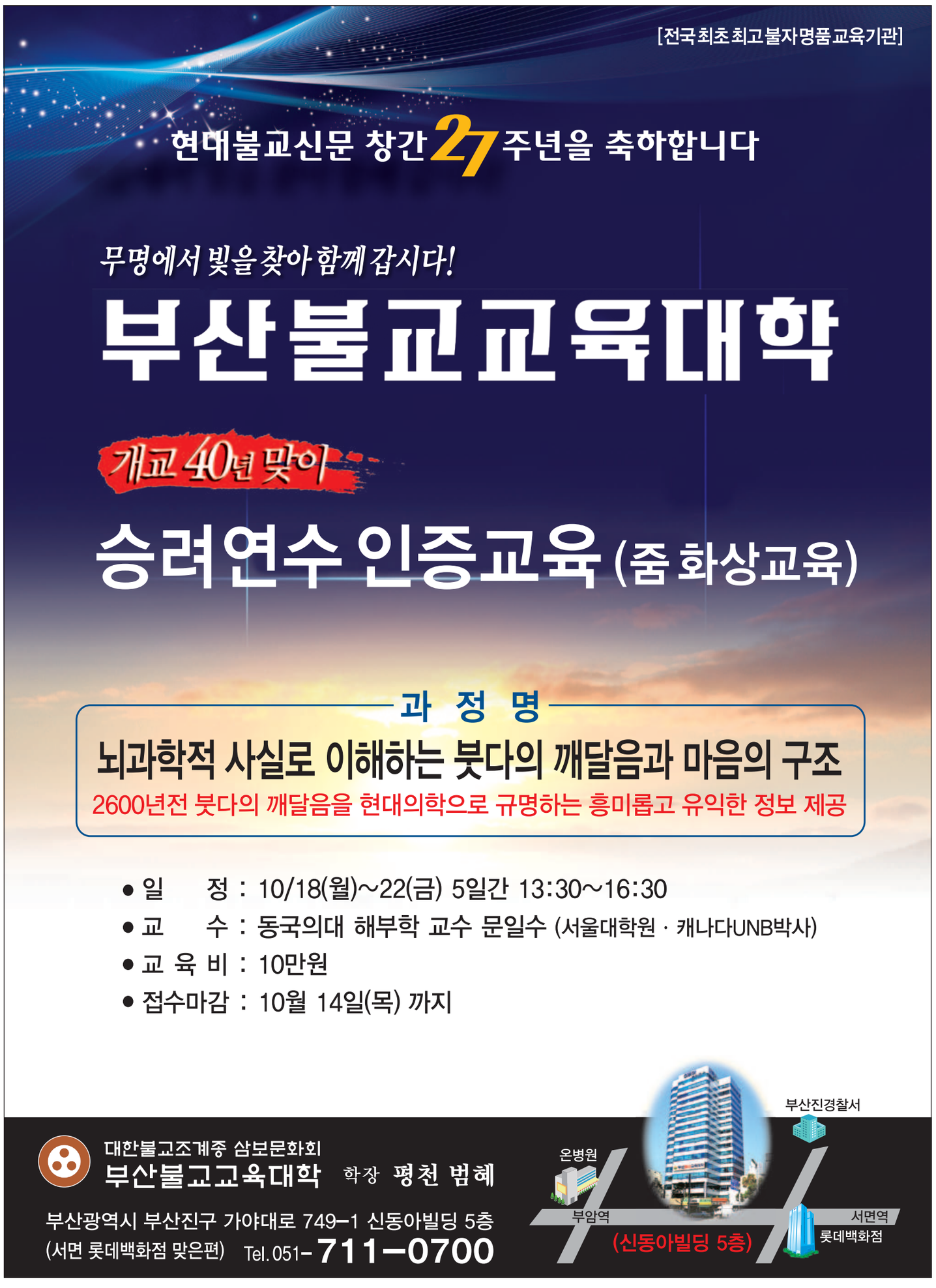
앗을 심어, 현생과 내생에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한 진정한 복전이 대성사"라고 했다.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10월 1일 경내 서원당에서 창립 54주년 기념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춘천 삼운사 주지 월중 스님이 증명법사로 모셨다.

삼운사 주지 월중 스님은 "관음기도도량 대성사에서 어려울수록 더욱 정진해 부처님을 닮아가는 천태불자가 되길 바란다. 봉사하며, 자비실천하는 천태인으로 대비심을 키워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성사 주지 도원 스님은 "누구나 행복의 씨

손문철 대구지사장



日고야산 불교유산, 8K초고화질로 만난다

일본TBS, 세계유산 고야산 8K로 최초 촬영해 '화제'

창사25주년 맞아 세계유산 소개
사상 최초로 특별허가 받아 촬영
유산 공개 꺼리는 일본선 이례적

박영빈 객원기자


8K 카메라로 촬영 중인 단죠가란지구 서탑의 모습.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온라인이나 가상현실 등을 통한 체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한 방송사가 차세대 초고화질 영상으로 주목받는 8K 해상도를 이용해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의 입체만다라를 촬영 · 보도해 화제다.

10월 3일, '요미우리 신문'은 최초로 방송촬영이 허가된 고야산의 입체만다라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TBS는 창사 25주년을 맞이해 일본 내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불교 성지 고야산을 취재, 고야산의 사계와 각 사찰들을 약 7시간 분량의 8K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초고화질 영상으로 등장한 8K화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2K(풀HD)의 16배가 높은 해상도를 자랑한다.

특히 8K영상의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생생한 현장감의 재현으로,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공간감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촬영을 담당한 타구치 아키라 감독은 "억지로 조명을 이용해 느껴지는 공간감이 아닌, 실제 현장에 와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음영과 공간의 무게감을 최대한 재현해 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약 1년간 간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부분은 세계문화유산인 콘고산마이인(金剛三昧院)의 다보탑과 단죠가란(壇上伽藍)지구의 서탑(西塔)이다. 콘고산마이인은 13세기에 창건된 사찰로 경내의 다보탑은 1223년 건립돼 현존하는 고야산 최고(最古)의 목탑이자,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다보탑이다. 탑과 내부의 불상은 모두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본존으로 모셔진 오지여래(五智如來)상은 당시 최고의 불상 조각가인 운케이(運慶)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껏 다보탑은 학술촬영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방송영상 촬영이 허가된 적 없었으나, 오랜 협상을 거쳐 특별히 최초 촬영이 결정됐다.

타구치 감독은 "오랜 세월동안 불상에 앉은 먼지나 그을음 등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모션 컨트롤 카메라 등을 사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살렸다"며 다보탑 내부의 아름다움을 한 장면 안에 그대로 담았다고 자부했다.

다보탑과 함께 특별허가가 나온 단죠가란의 서탑 역시 내부가 상시 비공개로, 여러차례 소실과 재건을 거듭해 약 200년 전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서탑은 특히 단죠가란의 중심 건물 중 하나인 근본대탑의 쌍을 이루는 탑으로 건립된 탑이다. 내부에는 금강계 대일여래상을 중심으로 태장계의 4불이 협시로 봉안 되어있다. 불상들과 함께 기둥의 보살도와 천정의 벽화들이 어우러져 탑 내부가 입체만다라를 이루고 있어 특히 미술적 가치가 높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 감독한 타츠미 케이타 프로듀서는 "8K카메라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작업이다"고 전했다.

英티베트 문화홍보 카페, 경영난 해소

인터넷 통해 전세계서 지원


카페에서 음식을 만드는 레카 가와. 사진출처=BBC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티베트 문화홍보 카페가 달라이라마와 전세계의 지원으로 경영난이 해소되어 화제다. 9월 30일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 'BBC'는 티베트 문화홍보 카페 '히말라야 카페'의 소식을 전했다.

티베트 문화 홍보 카페 '히말라야 카페'는 인도 출신의 티베트 난민 레카 가와(Reka Gawa)씨가 운영하는 개인 카페다. 레카씨는 2004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영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를 친견한 후 에든버러에 티베트 문화를 홍보하는 '히말라야 카페'를 개업했다.

레카씨는 그 날을 회상하며 "달라이라마께선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티베트의 문화를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하셨다. 그러나 임대중인 상가의 주인이 갑작스레 상가의 매매의사를 밝혔고 달라이라마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세계의 누리꾼들은 카페 상가 매입을 위해 모금을 진행했다. 레카씨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응원의 메시지와 기부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상가 매입금액 4만 5천 파운드(한화 약 7000만원)모금에 성공한 그녀는 "나는 인도 무수리(Mussoorie)에서 나고 자라면서, 영국에서 달라이라마를 뵙고 그 부탁을 받아 티베트의 문화를 홍보하는 카페를 운영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상가 매입 모금 활동에 인도에 있는 모든 티베트 난민들과 나의 가족들이 축하해주었다. 나는 티베트 문화홍보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카페에 모든 정성을 다했다 히말라야 카페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봉사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레카씨는 또 "내가 처음 에든버러에 왔을 때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힘든 기억이 있기에, 같은 난민이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직업 훈련을 돕고 일 경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금 덕분에 티베트 문화 홍보를 지속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주민 손으로 되살아난 日석굴법당

市 보조금 · 보시금 답지
지역민들이 직접 정비해


주민들의 손으로 되살아난 텐푸쿠지 오쿠노인.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석굴법당이 지역 주민들의 신심어린 손으로 다시 정비됐다. 9월 27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중수한 '텐푸쿠지 오쿠노인(天福寺奥之院)'에 대해 보도했다.

오이타(大分)현 우사(宇佐)에 소재한 텐푸쿠지 오쿠노인은 해발 200m의 요코야마(横山)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법당이다. 오쿠노인(奥之院)이란 일본 사찰에서 산내 암자 중, 사찰과 특별한 인연처에 세워지는 암자를 말한다. 텐푸쿠지 오쿠노인은 길이 21미터, 깊이 10미터, 높이 4.5미터의 천연 바위굴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법당이다. 부동명왕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어 지역에서는 부동당(不動堂)이라 불린다.

오쿠노인은 정면 3칸으로 중앙에 본존인 목조부동명왕상을 봉안하고 좌우에 총 76구의 불상이 봉안돼있다. 지역 사료에 따르면 부동당을 1113년에 건립하면서 80구의 불상을 봉안하였다고 전한다. 현존하는 불상들 중 43구는 현립 역사박물관을 이운되었고, 본존불을 포함한 33구의 목조 불상만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이타 현립 역사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봉안됐던 불상들 가운데 8세기의 소조 삼존불의 파편이 발견되면서 실제로는 건립연대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조사에 따르면 오쿠노인이 소재한 요코야마산에는 비슷한 암굴법당, 혹은 석벽을 파서 만든 다수의 묘혈(墓穴)이 다수 점재해 있어 오래전부터 해당 지역이 성소로 여겨져 왔음이 확인됐다.

또 올해 초 요코야마산에 산재한 유적들을 돌아보는 트랙킹 코스가 정비되면서 오쿠노인의 역사성과 풍경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에 평소 오쿠노인을 참배하던 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환경정비에 나섰다.

오쿠노인의 관리처인 텐푸쿠지(天福寺) 측에 따르면 "30여년 전에도 신심 깊은 지역 주민들이 나서 지금의 참배로와 법당 앞의 마루 등을 정비했다. 그러나 산길이 험해 그 동안 한 번도 보수나 수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암굴의 특성상 습기로 인해 나무가 쉽게 부식되면서 마루가 내려앉았고, 무엇보다도 벌어진 문틈으로 새들이 드나들며 집을 짓거나 배설물 등으로 불상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올 7월부터 시작된 보수작업은 시의 지원금과 신도들의 보시금으로 진행됐다. 신도들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은 등산로부터 오쿠노인까지 이어지는 170여 개의 돌계단을 하나하나 손으로 옮겨가며 보수를 시작했다. 이후 내려앉은 마루를 교체하고 새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철망을 문에 설치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했다.

특히 그동안 열악한 상황에 안치됐던 불상들을 안정적으로 봉안하기 위해 새롭게 안치대를 마련했다.

지난 26일 텐푸쿠지 주지 아소 짓코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점안식과 낙성법회에서 주민들과 지역단체장들은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안전히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오쿠노인의 보전에 힘쓰겠다고 결의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자비심 위해 배심원 그만둘래요"

美 배심원, 불교신앙으로 제외


법정으로 출두하는 엘리자베스 홈즈. 사진출처=데일리뉴스

테라노스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기재판에서 한 배심원이 불교신앙에 기반한 자비심에 의해 배심원단에서 제외됐다.

미국 데일리뉴스는 10월 8일 "한때 실리콘 밸리의 슈퍼스타였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처벌에 대해 한 배심원이 불교신앙에 따른 종교적 이유로 재판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배심원 번호 4번인 그녀는 캘리포니아 법정서 담당 판사인 에드워드 데빌라(Edward Davila)에게 "연민심을 갖고 있다. 불교를 믿기에 사랑과 용서를 위해 배심을 맡을 수 없다"며 본인을 배심원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심 제외 요청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매일 심판으로 인하여 당사자와 여러 사람이 고통스러워 할 것이 떠오른다"며 "이런 배심은 처음이고 한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배심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나는 홈즈가 감옥에 있을 시간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저에게는 배심이 매우 어렵다. 그녀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야 하고 나는 여기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있다.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담당판사 데빌라는 배심원을 직무에서 제외했고, 대체 배심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홈즈는 피 한방울로 각종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기술을 제시하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그녀는 테라노스를 설립해 투자를 모았으며, 기술이 거짓임이 드러나며 투자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공심의 불기둥으로
나와 세상을 밝히는 법형제

한가정의 가장이 앞장서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진해야
그 가정 전체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1990년 3월 법형제회 발족에 즈음하여 **대행 큰스님**께서 내려주신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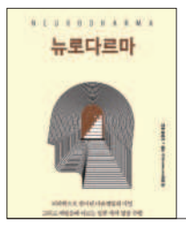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법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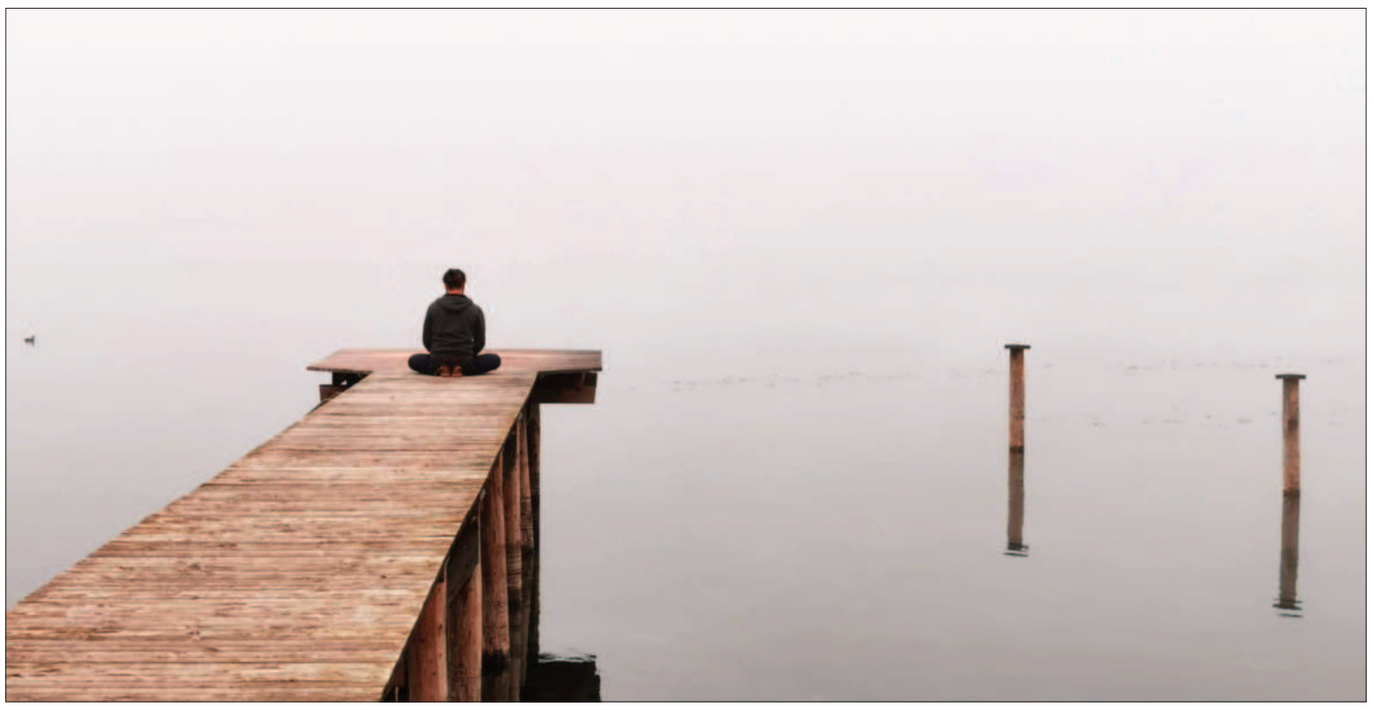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TEL. 010-9630-2095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있어”



뉴로다르마
릭 핸슨 지음/김윤종 옮김
불광 펴냄/2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생물학의 일대전환을 이룬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현미경의 개발이다. 17세기 네덜란드인 안토니 반 레벤후크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현미경은 ‘미생물’을 발견해 냈다. 이후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정립됐고, 질병의 원인도 하나씩 찾아나가며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다.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 현미경은 이제 가시광선보다 훨씬 작은 원자와 분자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이루는 단백질 구조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현미경이 없었다면 백신은 꿈도 꿀 수 없었을지 모른다.

현미경이 생물학에 혁명을 불러 왔듯이, 신경과학(뇌과학)에 일대전환을 이룬 하나의 발명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공명영상(MRI) 장치의 개발이다. 개발된 지 이제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하지만, 이 장치를 이용해 우주, 바다와 함께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3대 미지의 영역’이라 불리는 뇌에 대해 인간은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했다.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증명된 지견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다. 런던의 택시 기사들은 공간감각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유달리 발달되어 있다. 좁고 복잡하고 런던 시내를 이리저리 달리다 보니 자연스레 해당 부위가 발달된 것이다. 경험들은 신경 활동의 패턴이 되고 신경 활동의 패턴은 (특히 그것이 반복될 때) 지속되는 물질적 흔적을 남긴다. 신경가소성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이다. 신경가소성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학습’에 따라 인간은 뇌 구조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 이론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주류 과학계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로 치부했지만 자기공명영상은 이걸 증명해 내었고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학설이 되었다. 특히나 어린아이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이러한 과정은 지속됨 또한 밝혀냈다.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진화하는 것이다. 자연스레 뇌과학자들은 ‘마음이 뇌를 바꾼다’는 정의에 대해 긍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외의 분야가 주목을 받게 된다. 바로 명상이다. 자기공명영상 발명 직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명상과 뇌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 이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뇌를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로 신경과학자들이 ‘명상’에 주목을 하게 된 것이다. 명상을 할 때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불안이나 우울 또는 긴장과 같은 스트레스에 사로잡혔을 때 전두엽이라는 뇌피질 부위와 편도체라는 뇌 부위에서 과다한 흥분파를 보내는 것을 확인했으며 명상은 이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함도 밝혀냈다. 이밖에 명상은 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부터 부교감신경계의 작용으로 전환을 시도하며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 발병 위험률을 낮춘다는 사실, 그리고 각종 통증의 경감이나 중독성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게 만든다는 걸 밝혀냈다.

자연스레 신경과학(뇌과학)의 연구 결과물들은 의학 분야로 옮겨가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이제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명상을 활용하는 치료자들은 5할을 넘는다. 비단 ‘정신’과 관련된 의료 분야뿐 아니다. 이제는 통증 경감을 비롯한 여타 의료 분야로까지 명상 치료가 확산하고 있다.

명상으로 뇌를 바꾸기

물론 붓다를 비롯한 명상의 대가들이 ‘깨달음’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들은 단지 고통과 행복의 정신적 요소들을 탐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물리학자들이 정신적 요소들의 신경학적 기반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새로운 이해들을 무시한다면 과학과 명상 두 분야 모두에게 예의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명상이 어떻게 뇌를 바꾸는지 알아보자. 물론 명상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차이가 난다. 3일, 두세 달, 그리고 수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나눠보면 이렇다.

기저상태 회로는 우리가 생각 속을 헤매고 있을 때 활성화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당장 명상을 시작하고 이틀이나 사흘만 지나도 전전두엽 영역이 후 대상피질에 대한 하향식 지배력을 강화해 마음이 더 적게 습관적으로 헤매고 더 적게 자아에 사로잡힘이 밝혀졌다.

인간의 뇌 죽을때까지 진화한다
명상하는 마음 뇌도 바꿀수있어
해볼수 있는 명상연습 메뉴얼도

뇌에서 마치 알람처럼 반응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편도체다. 아프거나 위협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경고등을 켜고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시킨다. 명상을 하면 편도체에 대한 강력한 하향식 지배력을 계발해 과잉반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편도체 근처에는 작은 해마같이 생긴 해마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명상을 한 사람들은 이 해마 조직이 늘어난다. 해마체 내의 활동이 증가하면 더욱 편도체를 진정시킬 수 있다. 불과 두세 달의 명상만으로도 가능한 뇌의 변화다. 그래서 명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이 더 적게 분비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좀 더 경험이 쌓인 마음챙김 명상가에서는 전전두엽 피질의 신경조직이 점점 더 두꺼워진다. 그리고 이 부위는 계획이나 자기-통제 등의 실행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뇌섬엽(insula)이라는 부위의 조직도 증가하는데, 이는 자기-인식과 타인의 느낌에 공감하는 기능에 관여한다. (앞쪽의) 전 대상피질 또한 강화된다. 이는 우리가 정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위이다. 그리고 뇌량(corpus callosum) 또한 조직이 증가하는데, 이는 언어와 이미지, 논리와 직감 사이의 통합이 더 잘 일어나리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이정도면 수년의 명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평생에 걸쳐 수천 시간의 수행을 한 명상가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노련한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은 -명상을 이제껏 2만 시간 이상 해왔던 사람들- 이미 예상되는 통증 앞에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보여 주며, 통증 뒤에도 대개 빠른 회복을 보인다. 또한 그들의 뇌파 활동을 측정해 보면 비범한 수준의 높은 감마파를 보인다. 이는 학습 능력 강화의 물질적 실체인 대뇌피질에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초당 25내지 100회 가량의 빠른 주파수로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종합해 보면, 명상과 일상생활 양쪽에서 의도적인 자기-규율의 상태로부터 자연스러운 현존감과 평온함 쪽으로 점진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뉴로다르마란 무엇인가?

물론 명상을 할 때 이런 과학적 증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몰라도 명상을 한다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근거를 알고 있다면 명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당장’, 그리고 명상에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시도해 봤던 사람은 좀 더 꾸준히 명상을 하고 싶어질 것이다.

저자 릭 핸슨은 전작 〈붓다브레인〉을 통해 명상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명상과 뇌는 상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대강’의 그림을 그려 세상에 내놓았다. 신경과학계는 ‘획기적(Groundbreaking)’ 연구라며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도 열광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 반열에 올랐고 28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의 연구 성과를 계승한 많은 저작이 출현했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더 많은 연구와 자료가 축적이 되었다. 〈뉴로다르마〉는 이런 최신의 지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뇌의 연결 부위들도 좀 더 방대해졌다. 관련 분야도 신경과학뿐 아니라 심리학에서 양자역학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리고 저자는 그리고 수년간 그가 실험하고 실천해 왔던 ‘뉴로다르마’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뉴로다르마라는 관점은 임상심리학, 자기계발(기타 세속적인 접근에 대한 통칭으로), 그리고 지혜 전통 모두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개념을 이해할 공통적인 뼈대다. 일례로, 뇌에서 진화된 부정편향(negativitybias)에 대한 연구는(이 책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기쁨, 친절함 같은 긍정적 감정 경험을 두드러지게 함을 알려준다. 신경학적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우리 정신적 ‘소프트웨어’ 가령, 뉴로피드백 같은 개념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적인 맞춤형 연습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기질이 -가령 신경질적이거나, 산만하다 해도- 인간 뇌구조상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상 범주에 속함을 이해한다면, 스스로 받아들이기도 쉽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연습을 찾기도 쉬워질 터이다.

이 접근법은 행복감과 만족감 같은 중요한 경험들로부터 시작해 거꾸로 그 배경이 되는 뇌 속의 기능으로 작업해 들어가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자신을 주관적인 동시에 객관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이들 두 방향의 접점이 바로 뉴로다르마이다. 동시에 단지 머리로만 하는 연습은 피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단지 이론일 뿐인 문제들에 대한 ‘무성한 덤불 같은 견해들’을 주의 깊게 피하고, 고통을 끝내고 지금 여기라는 진정한 행복을 찾는 실질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라는 붓다의 조언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래서 이 책의 5할은 신경과학(뇌과학)에 대한 기존 혹은 최신 지견이라면 나머지 5할은 실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명상 연습 매뉴얼이다. 이 둘의 통합을 시도한 것이 바로 뉴로다르마다.

명상의 수준도 높아졌다. 친절이나 자비 같은 수준뿐 아니라 무시간성이나 무아(無我)를 체험하는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준이다. 물론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독자들은 적절히 자기 수준을 찾아나가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전작 〈붓다브레인〉은 예고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 **릭 핸슨**은?

신경심리학자이자 명상지도자다. 열여섯 살에 UCLA에 입학했으며 1974년 최우수 성적(summa cum laude)으로 졸업했다. 졸업 당시 UCLA 총동창회로부터 ‘가장 뛰어난 졸업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1년에는 버클리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명상을 통해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구글, NASA, 옥스퍼드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등에서는 그를 종종 초청 강사로 활용한다.

2009년 발간된 〈붓다 브레인(Buddha’s Brain)〉은 뇌과학과 명상의 관계에 ‘획기적인(groundbreaking)’ 진전을 이룬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그해 단숨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8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동안 연구와 체험을 토대로 몇 년 전부터 ‘뉴로다르마’라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에는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몇몇 프로그램은 뉴스레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그의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을 넘고 있다.

불자들이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산스끄리뜨 완역으로 만나다!

불광미디어 유튜브 저자 금강경 강의

불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금강경』! 그러나 산스끄리뜨 원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접한 것은 한역본 『금강경』이었다. 인도에서 산스끄리뜨와 빠알리어를 수학하고, 연구 모임을 이끌며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을 전하는 데 주력해온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의 역작인 이 책은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산스끄리뜨 원전과 핵심을 찌르는 한역본을 세세하게 비교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옮기고, 풍부한 해설을 덧붙여 그 안에 숨 쉬는 가르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산스끄리뜨 원전으로 만나는
원형의 금강경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वज्रच्छेदिकाप्रज्ञापारमिता
현진 역해 | 480쪽 | 양장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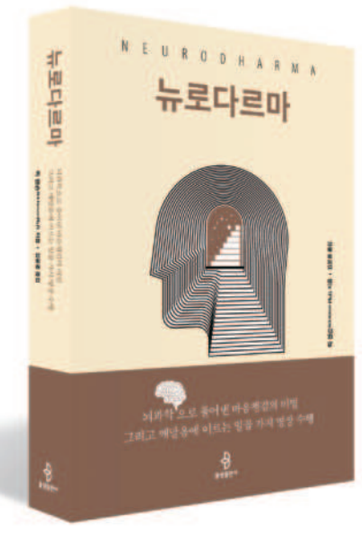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우주, 바다와 함께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3대 미지의 영역인 뇌를 탐색하던 과학자들이
맞닥트리게 된 것은 바로 명상!

최신간

뇌과학과 명상의 관계에 ‘획기적인(groundbreaking)’ 진전을 이룬 작품이라는 과학계의 찬사를 받았던 〈붓다브레인〉은 대중의 관심도 한 몸에 받으며 그해 단숨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9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붓다브레인〉의 릭 핸슨이 〈뉴로다르마〉로 돌아왔다.



〈뉴로다르마〉에 보내는 찬사

심장과 마음을 단련하는 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길
– 잭 콘필드(『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의 저자)

신경과학과 불교적 수행법 및 철학 양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릭 핸슨은 이 매혹적인 작품을 멋지게 창조해 내었다.
이 책은 마음을 단련하여 뇌를 변형시키고,
건강과 번영으로 이끄는 방법을 보여준다.
– 대니얼 J 시겔(UCLA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교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슴으로 이끌 실용적이고,
강력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실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릭 핸슨의 탁월함에서 비롯된다.
– 타라 브랙(『받아들임』의 저자)

뉴로다르마
릭 핸슨(Rick Hanson) 지음 | 김윤종 옮김 | 440쪽 | 20,000원

“경이로운 존재의 순간이 화양연화”

11년 만에 개인전 여는 사진가 박상훈
‘화양연화’展 10월 1~31일 갤러리 나우



존재 · 시간 · 경이로움 담은 사진 22점 전시
꽃의 경이로움에서 자신의 경이로움 발견해
가상 ‘디지털이슬’ 사진에 입힌 새로운 시도도

“사진 통해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서는 여정과,
존재에 대한 질문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계획”



화양연화–Flower 02–2018–2021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철학적 원소는 ‘존재’가 아닐까. 그리고 각자가 지닌 ‘존재’의 발아가 각자의 이름이 아닐까. 꽃, 나무, 새 … 인간. 그리고 ‘존재’라는 원소를 지닌 그 모든 생명들은 시간이 증명하는 것들이어서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경이로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존재의 경이로움을 들여다보는 사진가가 있다. 그 사진가는 갤러리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들을 ‘질문’들이라고 했다. 존재의 경이로움을 들여다보고 난 후의 질문들이다.

1986년 ‘우리나라 새벽여행’ 展으로 풍경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사진가 박상훈이 11년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박 작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갤러리 나우에서 초대 개인전 ‘화양연화’를 연다.

전시의 큰 주제는 역시 지금까지의 ‘박상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존재와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순간순간이 전하는 경이로움이다. 그리고 큰 주제의 문장이 되고 있는 테마는 꽃(Flower)과 사람(People)이다. 인물(누드)에서 시작해 나무로 이어진 전작 ‘토르소’에서처럼 이번 작업은 꽃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 영감은 사람으로 이어졌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꽃과 사람을 통해 ‘존재’의 문제를 들여다본 사진 22점을 선보인다. 박상훈의 사진이 되어버린 꽃들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관람객은 ‘화양연화’를 본다. 아니 화양연화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전시의 이유다. 사진가 박상훈이 던지는 질문, ‘화양연화’다.

“어느 날, 산책을 하던 공원에서 늘 보던 꽃이 눈에 들어오는데, 왠지 그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평범한 꽃인데 그날따라 달라보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죠.”

박 작가는 2016년 아주 소중한 사람을 먼저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황망한 이별을 겪은 후 다가오는 상실감과 아쉬움은 박 작가로 하여금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했다. 아니 처음으로 ‘생명’이라는 문제를 문제적 명제로 생각하게 했다.

“소중한 사람을 다른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주의 수많은 별이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경이롭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꽃이 그랬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꽃들이 그랬어요. 그 전에도 보았던, 평범하고 연약한 그 꽃들이 경이롭고 그 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것이 각자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경이로운 이 순간순간이 화양연화인 것이죠. 꽃은 내가 있든 없든 늘 계절에 맞게 피겠지만 내가 없다면 그 꽃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작가가 그냥 스쳐지나갔다면 사라졌을 ‘존재’가 특별한 만남을 통해 꽃도 박상훈도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박 작가의 사진은 전작들이 그랬듯이 피사체 본연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한 사진이다. 배경을 배제하고 순간순간 철학적 원소로서의 ‘존재’를 피우고 또 스러지는 ‘과정’ 속의 꽃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 ‘들여다봄’은 박상훈의 질문이자 관람객들이 품어야 할 질문들이다.

“예술가는 무언가 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술’이 된 작품들은 보는 이들 각자의 몫으로서의 ‘질문’이고 스스로의 ‘답’으로 가는 문인 것입니다. 예술가는 그 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작가는 이번 작품들에서 아날로그로 축적된 노하우로 꽃 사진을 완성했다. 그리고 사진 및 영상에서의 후반작업을 거쳤다. 그 마지막 과정은 디지털 프로세스로, 사진 속 꽃잎 표면에 가상의 아침 이슬을 입혔다. 인위적인 가상의 디지털 이슬은 이번 작업의 화룡점정이다.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꽃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기도 하고 내게 특별히 다가오는 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개미가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매미가 떨어져 죽어 있기도 했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주라는 큰 개념에서 보면 꽃이나 벌레, 인간이 찰나의 존재라는 점에선 크게 다를 바 없고, 존재하는 것에는 모두 존재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에 가 닿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기 시작한 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찍어야 할까 고민했다. 박 작가는 꽃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조명을 주고 배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시회를 열기 직전에 찍어놓은 사진 속 꽃에 디지털 이슬을 입혔다.

“아날로그 세대가 수없이 찍은 꽃 사진이 디지털 시대에 와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접목시켜 융합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법적인 수단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꽃이 지닌 존재를 들여다보고 꽃의 본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미학적 차원으로 사용했어요.”

풍경사진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던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또 한 번 사진의 새로운 길을 열어냈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꽃 사진을 박상훈만이 찍을 수 있는 꽃 사진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낸 것이다.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바라본 것이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불교의 ‘佛’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마치고 난 후의 인터뷰 끝에서 ‘佛’자가 보였다. ‘존재’에 대한 문제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랬다. 마지막으로 불연에 대해 묻자 박 작가는 망설임 없이 ‘모태’라고 말했다. 인터뷰의 끝에서 ‘佛’자가 보였던 것은 박 작가가 불교와 가깝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작가는 부처님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부처님이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부처님 공부의 결론 같다고 말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박 작가는 사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박 작가에게는 온전히 자신에게 의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도 사진가 박상훈은 자신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존재마다 부여된 ‘존재’의 의미를 사진으로 옮겨낸다. 앞으로 사진가 박상훈이 만나게 될 ‘박상훈’이 궁금해진다.

박상훈(1952~)은 중앙대학교 사진과를 졸업했다. 1982년에 첫 개인전 ‘풍경모음’ 이후 1986년과 1994년에 ‘우리나라 새벽여행’, 2006년 ‘Who are you’, 2010년 ‘토르소’를 열었다. 1994년 ‘The New York Festival’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 김환기 화가와 함께 한국을 알리는 작가로 선정됐다.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코로나 시대 禪, ‘사회적 마음챙김’에 주목을”

오용석 HK연구교수, 〈선학〉 발표논문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마음을 닦고 또 닦는 수행론이 아니라 철저한 연기법의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회적 마음챙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분노, 슬픔 등이 팽배한 현 상황을 선불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유심론적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연기법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마음챙김’이 현 시대의 선불교가 가질 방향이라는 것이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는 한국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선학〉에 발표한 논문 ‘코로나19 시대, 선불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통해 이 같이 주목했다.

오 연구교수는 현재의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들의 유행이 인간이 저질러온 환경파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나는 연결이고, 연결이 나”라는 김기봉의 주장을 인용하며 전문 학자들의 비판들이 불교의 연기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상호의존적 연결성이 선불교에서는 ‘법계(法界)’의 개념으로 설명된다는 게 오 연구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인간의 감염은 다른 측면에서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돼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선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법계의 상호관계성을 벗어나지 않고, 이러한 법계는 평상심을 통해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상된다”면서 “법계는 무분절의 분절이며, 무매개적 전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법계의 묘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선 수행을 하는 수좌 스님들의 모습. 코로나19시대에는 유심론적 주관주의에서 벗어난 선 수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감염, 연결 등 禪의 관점서 고찰
퍼서의 ‘사회적마음챙김’도 주목
유심론적 주관주의 극복 제시해
“비이원적인 삶, 現시대에 필요”

그러면서 오 연구교수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선불교의 ‘안심법문’을 주목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겪고 있는 마음의 불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불안한 마음의 실체를 인정해 그것을 다스리기보다 자체가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는 것”이라면서 “선불교가 제시하는 안심법문은 행복연구나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도 긍정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불교에서 보여지는 유심론적 주관주의는 경계해야할 점이라고 오 연구교수는 주장했다. 오 연구교수는 “선불교가 법계의 상호의존성과 활발발한 구체적 일상 구현을 중시하는 것은 주관주의의 해체를 의미한다”면서 “선불교의 수증론이 주관주의를 극복할 때 관계 회복과 안심의 경지에 이르고 이를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적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연구교수는 주관주의 극복의 아이템으로 ‘사회적 마음챙김’을 제시했다. ‘사회적 마음챙김’은 현재 서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맥마인드풀니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널드 퍼서가 저서 〈마음챙김의 배신〉에서 강조한 개념이다.

오 연구교수는 “선불교의 수증론이 갖는 특징은 깨침을 통해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상호의존의 법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다”면서 “사회적 마음챙김이 연기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배경으로 유심론적 주관주의 극복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선불교의 기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널드 퍼서는 ‘진정 혁명적인 마음챙김은 비원적’이라고 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비이원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불교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불교문화 조명 학술대회들 ‘눈길’

순천대 남도硏, 10월 15일
‘백운산과 불교’ 학술대회
평택불교사암련, 10월 16일
평택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
삼척 안정사, 13일 설법전서
땅설법 조명 학술대회 개최

지역 불교문화와 무형유산들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들이 잇달아 열린다. 이들 학술대회는 그간 학계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불교 문화유산들을 조명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소장 이욱)는 10월 15일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양 백운산의 불교 문화’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양 백운산은 신라 말 도선 국사가 말년을 보냈던 옥룡사를 비롯해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다. 〈동국여지승람〉과 〈광양읍지〉에는 옥룡사, 운암사, 송천사, 황룡사, 백운사, 개룡사, 성불사, 초천사 등의 사찰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백운사만이 조선 시대로부터 지속적인 명맥을 유지해온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다른 사찰은 현대에 새로 중창됐다. 그러다보니 백운산의 불교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백운산 불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는 백운산 불교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역사 · 불서 · 불상 관련 전문가에 의뢰해 백운산 불교 연구를 진행했고, 백운산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창된 성불사의 전통사찰 지정 가능성도 함께 연구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그간 남도문화연구소가 연구해 온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전근대 광양 백운산 불교의 역사’를, 박용진 국민대 교수는 ‘조선시대 백운산 간행 불서의 성격’을, 유근자 동국대 교수는 “백운산 소재 불상의 문화적 가치”를, 신선혜 호남대 교수는 ‘백운산 성불사의 전통사찰 등록 가능성’ 연구 논문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계표 전남문화재위원, 홍영기 전남문화재위원(순천대 명예교수), 손성필 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학술세미나의 연구책임자인 이종수 교수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백운산뿐만 아니라 광양 지역 불교문화에 관한 연구가 한층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적문, 수도사 주지)가 10월 16일 평택 수도사 원효대사깨달음체험관에서 개최하는 제1회 ‘평택 역사문화로드’ 학술대회는 혜초 · 원효 · 의상 스님의 구법 원력을 조명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학술대회는 평택시민과 국민들이 찾는 평택호예술공원에 혜초 · 원효 · 의상 스님의 구법 열정을 예술조형물로 기념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열린다.

1부 개회식과 2부 학술발표로 나눠 진행되는 학술대회에는 평택과 구법승들의 구법 루트를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김경집 인천시 문화재전문위원(前 진각대 연구교수)은 ‘원효의 구법행로에 대한 연구’에서 평택이 중국 문화 유입의 관문임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효의 구법로를 고찰한다.

김규현 티베트문화연구소장은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의 해로설(海路說)’을 통해 국내 학계에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혜초 스님 해양 루트를 살피며, 박재용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는 ‘심복사와 비로자나불- 부처가 바다에서 나온 까닭은’에서 원효가 입당을 단념하고 수도사 인근에서 수행한 이유가 비로자나불이 바다에서 나온 뜻과 같은 것은 아닌지를 대중에게 전한다.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불교 속강인 땅설법을 조명하기 위한 학술대회도 열린다. **삼척 안정사**(주지 다여)는 10월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 속강 문화 복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는 김형근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가 ‘안정사 땅설법의 공연예술 양상과 창작연희로의 활용 모색’을, 허용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가 ‘안정사 땅설법의 인형극과 그림자극 연구’를, 윤동환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가 ‘안정사 땅설법과 농악 농사풀이 연행양상 비교 연구’ 등을 각각 발표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함안희 무형문화연구원장, 김도현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반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땅설법의 가치 확산’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제언이 이뤄지며, 땅설법 법주 다여 스님과 안정사 신도들이 참여하는 오픈 토크 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책임연구자 윤동환 연구교수는 “삼척 안정사 땅설법은 삼척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서도 가치가 있으며, 특정 종교의 한정된 문화가 아닌, 한국의 전통예술로서도 그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 전승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신입생 모집

10월 18~25일 일반전형 접수…조계종 스님 학비 65% 감면

불교학과 경영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융섭해 배울 수 있는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불영 자광)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일반전형으로 2022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0월 7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정규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참여하는 협동과정으로 해당 과정을 이수하면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는다.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2022년 1학기 일반전형 모집의 원서 접수는 10월 18일~25일까지 인터넷(www.uwayapply.com)에서 할 수 있다. 석사 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이고, 박사 과정은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여야 한다. 석 · 박사 통합 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석사과정 지원 자격에 준하며, 타 대학원 재학자의 편입학도 가능하다. 조계종 스님은 정규학기 수업료의 65%를 감면하는 ‘건학이념 구현 장학금’의 혜택이 있다.

불교 교단에 필요한 경영 능력과 일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을 겸비한 경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론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강조한다.

강사진으로는 불교, 경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불교학 분야에서는 김종욱(불교철학) · 신성현(계율학) · 허남결(불교응용윤리학) · 이자랑(불교교단사) · 조기룡(종무행정과 사찰경영) 교수가, 경영학 분야에서는 김승용(조직행위) · 정구혁(인적자원관리) 교수가 참여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김관규(방송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 김용환(디지털/소셜미디어) 교수가 교수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관계자는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과 불자 경영자나 활동가들뿐 아니라, 불교학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소통 철학을 배우고자 하는 타 종교인도 입학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종립대학의 불교 최고위 과정이나 사찰경영 전문 CEO 과정을 수료한 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면강의가 가능해지면 불교교단의 종무행정과 사찰경영에 필요한 현안을 고민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는 불교정책 스터디를 전용 공간인 부디스트 비즈니스 컨설팅 룸에서 주임교수(조기룡)의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7

▶ 38회 예고
우데나왕은 아반띠국 짠다빳조따왕에게 사로잡혀 감옥에 갇힌다. 짠다빳조따왕은 우데나왕에게 코끼리를 부리는 주문을 배우려고 한다. 우데나왕은 조건으로 삼배를 요구한다. 짠다빳조따왕은 체통 때문에 딸을 내세운다.



깟짜나, 짠다빳조따왕을 교화시키다

건기인데도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다가 그쳤다. 특사단장 라다굽따가 아쇼까에게 면담을 요청한 날이었다. 웃자인 성민들은 비를 보고 환호성을 터뜨렸다. 비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왕궁 접견실 베란다에 서 있던 아쇼까도 미소를 지었다. 궁중정원의 나뭇잎들이 비에 젖어 생기를 되찾은 듯 번들거렸다.

라다굽따가 수행원 없이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아쇼까는 접견실 문을 열고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어린 왕자시절에 한때 스승이었으므로 아쇼까는 라다굽따에게 예를 갖추었다.

"이곳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소?"

"부왕님께서 배려해주시니 특사일행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쇼까는 날마다 특사일행을 위해 귀족식단에 다 염소 3마리와 잉어 50마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 잠자리는 시프라강 언덕에 있는 아쇼까의 별궁을 주어 특사일행이 휴식을 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대왕님께 정식으로 지시받은 일은 아닙니다만."

"대왕님의 마음을 헤아리어 보좌하는 것도 특사의 임무겠지요. 어서 말해 보시오."

라다굽따는 짜파티를 마시려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어리신 왕자님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왕자님들에게 우주와 다양한 세계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빠딸리뿌뜨라 왕궁에는 브라흐마 제관이나 자이나교, 아지비까 구루 등은 많은데 불교 사문이 아직 없습니다. 대왕님께서는 불교 사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웃자인에 훌륭한 사문이 있다면 모셔 가고 싶습니다."

아쇼까는 바로 라다굽따의 말을 이해했다.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아쇼까도 어린 왕자시절에 목갈리뿟다띳사라는 불교 사문에게 배운 적이 있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은 왕자들이 여러 종교를 알아서 다양한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갖기를 원했다.

"산치동산 절에 담마팔이라는 사문이 있소. 그는 전생과 현생, 내생의 일까지 볼 줄 아는 사문이라오. 담마팔 사문이라면 어린 왕자들을 잘 가르칠 것이오."

"부왕이시여, 담마팔 사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가까운 거리이니 내가 초대해서 사문의 의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소."

아쇼까는 즉시 호위대장을 불러 담마팔 사문을 데려오도록 지시했다. 라다굽따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다소 놀랐다. 아쇼까의 추진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즉석에서 지시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라다굽따가 접견실을 나서는 순간 빗방울이 또 다시 한두 방울 떨어졌다. 라다굽따는 흐린 하늘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건기에 내리는 비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말이 생각나서였다.

이틀 후.

호위대장은 담마팔 사문을 데리고 웃자인성 남문으로 들어왔다. 담마팔이 입궁했다는 보고를 받은 아쇼까는 라다굽따를 불러오도록 지시했다. 아쇼까는 라다굽따가 담마팔을 무슨 말로 시험해 볼지 몹시 궁금했다. 자신은 산치 동산 절에서 담마팔 사문에게 데비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다굽따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었다.

호위대장은 담마팔을 접견실까지만 안내를 하고 돌아갔다. 라다굽따도 곧 접견실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경비대장이 접견실 정문을 열어주자, 두 사람은 서로 목례를 한 뒤 들어갔다. 바로 그때 아쇼까가 맞은편 작은 문을 통해서 나타났다. 작은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기둥 같은 것이 아쇼까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아쇼까의 또 다른 모습에 움찔했다. 그러나 아쇼까는 두 사람 모두 구면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맞이했다.

"사문이시여, 이 분은 대왕님의 명으로 웃자인에 온 라다굽따 제관입니다. 라다굽따 제관께서 사문을 만나보고 싶다 하여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오. 대왕님의 특사이니 대왕님의 질문으로 알고 묻는 말에 대답해주기 바라오."

"부왕님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쟁반을 든 늙은 궁녀와 앳된 궁녀들이 들어와 아쇼까 앞에는 황금주전자와 금잔을, 라다굽따와 담마팔 앞에는 은주전자와 은잔을 놓고 갔다. 주전자에는 포도주가 아닌 코코넛 음료가 들어 있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담마팔 사문을 위한 배려였다. 궁녀들은 금잔과 은잔에 코코넛음료를 따른 뒤 접견실을 나갔다. 아쇼까가 먼저 담마팔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 물었다.

"대왕님께서 어린 왕자들의 스승을 찾고 계시오. 초대한다면 빠딸리뿌뜨라로 가겠소?"

"대왕님께서는 왜 사문을 찾고 계신 것입니까?"

"왕자들에게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오. 나도 한때 불교 사문에게 배운 적이 있소."

아쇼까의 말에 담마팔 사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대왕님을 뵙고 싶습니다."

"왕자들의 스승이 되는 것은 마우리아왕국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오. 고맙소."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승은 산치 동산 절을 지은 베디샤데바님의 허락을 받아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데바 상인 수장은 나와 더 없이 호의적인 관계라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쇼까는 잔을 들고 건배를 제의했다. 라다굽따와 담마팔도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아쇼까의 건배사를 기다렸다. 아쇼까가 '영원한 마우리아왕조를 위하여.' 하고 선창하자 두 사람은 큰소리로 복창했다.

"영원한 마우리아왕조를 위하여!"

라다굽따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문이시여, 사문께서는 대왕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십니다."

"과찬입니다. 소승은 산치 동산의 작은 절 승려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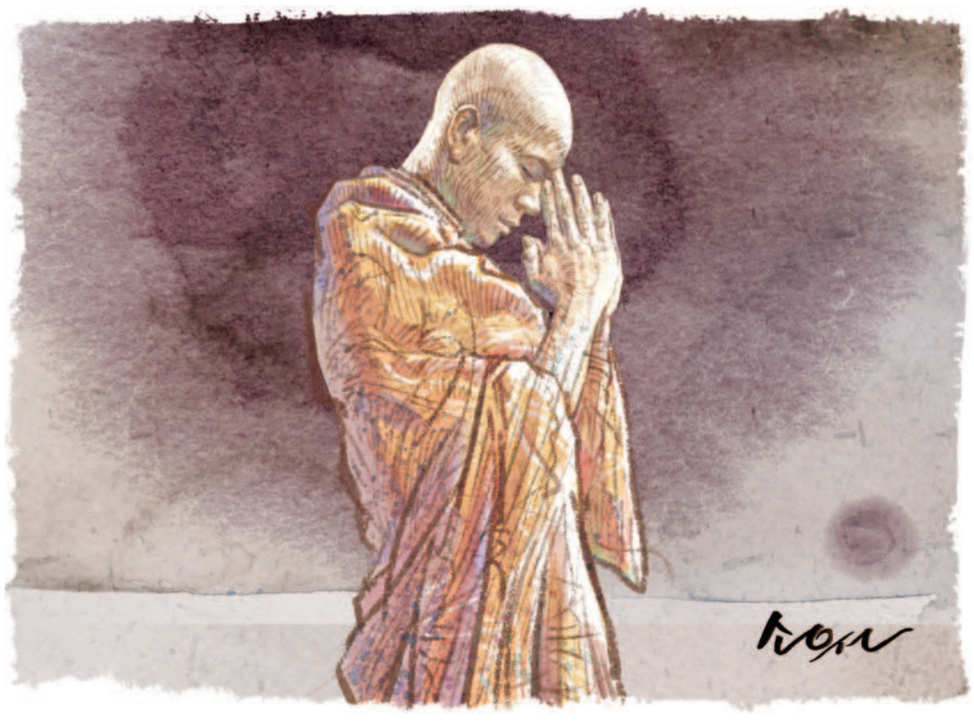
라다굽따는 담마팔 사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매력을 느꼈다. 사문의 겸손은 아반띠국 사문들의 전통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성군이 다스릴 때나 탁월한 사문이 출현하면 백성들은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지는 법이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추듯 캄캄한 밤에 달이 뜨듯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아반띠국에도 훌륭한 왕이 있었던 것 같소."

"한 사문이 훌륭한 왕으로 인도했습니다."

"훌륭한 왕이란 누구인가요?"

"붓다가 살아계실 때 아빈띠국을 다스렸던 짠다빳조따왕입니다. 왕은 웃자인 출신 깟짜나(가전연) 사문의 설법을 듣고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쇼까도 가슴 한 구석에 성군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으므로 귀를 기울였다. 담마팔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부드러운 바람 같았다.

"웃자인 태생의 깟짜나 사문은 브라흐민 신분의 궁중제관 아들이었지요."

깟짜나의 아버지는 베다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도 자신의 뒤를 이어 제관이 되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소망대로 깟짜나도 성장하여 궁중제관이 되었다. 깟짜나 제관은 기도를 잘하여 왕의 참모 자리로 올라섰다. 어느 날 짠다빳쪼따왕이 붓다를 초청하고자 깟짜나 제관을 마가다국으로 보냈다. 일곱 명의 깟짜나 특사 일행은 꼬살라국 수도 스라바스티 제따와나(기원정사)로 갔던 것이다.

그런데 제따와나에 도착한 깟짜나는 붓다의 설법을 듣고는 제자가 되어버렸다. 깟짜나만 아반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사문이 된 깟짜나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쉬운 논리로 설하고 다녔다. 소문을 들은 붓다가 칭찬했다.

"내가 간략하게 설하는 가르침에 대해 내 가르침을 상세하게 설하는 사문들 가운데 마하 깟짜나가 으뜸이다."

"마하깟짜나는 현자이며, 큰 통찰지혜를 가진 수행자이다."

마침내 깟짜나 사문은 고국인 아반띠국을 찾았다. 짠다빳조따왕은 왕명을 어긴 깟짜나 사문을 뜻밖에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에 깟짜나 사문은 짠다빳조따왕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겠구나 하고 판단했다. 사실 온순했던 시절의 왕 이름은 빳조따였는데, 성격이 난폭해진 뒤부터 백성들에게 짠다빳조따로 불렸던 것이다. 깟짜나 사문은 짠다빳조따왕을 본래의 모습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설법을 했다.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악행을 시킨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말에 의해 나쁜 사람이 되지도 않고 남의 말에 의해 성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하늘의 신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짠다빳조따왕은 깟짜나 사문의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마음속에 무언가 회오리치는 듯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다. 깟짜나 사문은 설법을 계속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밝게 깨닫는 이는 더 이상 죽이고 빼앗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사 재물을 잃더라도 홀로 잘살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윽고 짠다빳조따왕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깟짜나 사문은 왕이 어떤 태도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하고는 설법을 마쳤다.

"대왕이여, 장님이 보듯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듯이 들으며, 이미 알고 있어도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 있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약자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선행을 쌓을 수 있고, 복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라다굽따가 담마팔 사문의 이야기를 끊듯 말했다.

"깟짜나 사문은 짠다빳조따왕에게 악행의 과보를 말했소. 스스로의 행위로 악인도 되고 성인도 된다고 말했소.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했소. 왕이 선행을 쌓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말했소. 이 모든 가르침은 빠딸리뿌뜨라에 계시는 왕자님들이 모두 배우고 익혀야 할 가르침들이오."

아쇼까도 한 마디 했다.

"담마팔 사문이여, 깟짜나 사문이 짠다빳조따왕을 교화시켰던 것처럼 왕자들을 가르쳐주시오."

"깟짜나 사문은 붓다의 제자들 중에서 설법논리가 가장 뛰어났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마하깟짜나 사문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깟짜나 이름 앞에 마하를 붙여 부르는 것은 그가 사문들 중에서도 수승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담마팔 사문이라고 해서 마하담마팔이라고 불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베디샤데바가 아쇼까의 부름에 급히 궁궐로 들어왔다. 데바는 아쇼까로부터 담마팔을 빠딸리뿌뜨라로 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절을 했다.

"부왕님이시여, 저의 절 사문을 대왕님께 보내시겠다니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데바는 역시 머리 회전이 빠른 상인 수장이었다. 데바가 영광스럽다고 한 것은 담마팔을 매개로 빈두사라왕과 왕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데바는 웃자인에서 마우리아국의 수도 빠딸리뿌뜨라로 확실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계속〉

32th 전문신문 인쇄의 역사
SINCE 1989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와 한국씨티에스는
전문신문의 역사를 함께 합니다.


32년 전통 인쇄 기술력

32년 전통의 기술력과 최신 설비(HAMADA / TKS 윤전기 (4색도) ; 35,000부/H)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기업, 200여개 신문제작 대행으로 실력이 검증된 기업, 고품질 인쇄와 안정적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주)한국씨티에스는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쇄소입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최고의 만족으로 보답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여종 신문제작 대행


차별화된 시스템

본사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 2층
Tel. 관리부 02)362-1199 / 영업부 02)362-6677 / 전산실 02)362-5311

제작센터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가길 42-36 (온수동)
Tel. 02)2684-3377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⑲ 여말선초 임제종풍의 전개



▶ 한줄 요약
고려 말기에 이르러 원나라를 통하여 백운 경한(白雲景閑), 태고 보우(太古普愚),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등 일군의 선자들에 의하여 재차 임제종의 선법이 수입되면서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전승되어 왔다.

한국선 주도 세력으로 전승된 임제 선법

1. 백운 경한

신라 말기 지리산(智異山) 화상 및 고려 초기에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을 통해서 수입된 중국 선종의 임제종은 고려 중기까지는 그다지 큰 역할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눌 이후로 임제종 계통에서 출현한 간화선법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 이르러 원나라를 통하여 백운 경한(白雲景閑), 태고 보우(太古普愚), 나옹 혜근(懶翁惠勤, 1320~1376) 등 일군의 선자들에 의하여 재차 임제종의 선법이 수입되면서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선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전승되어 왔다.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의 선풍은 이름처럼 성품이 천진스럽고 전혀 거짓이나 조작이 없고, 형상을 빌어서 이름을 팔지 않았으며, 참으로 속세를 여읜 진경(眞境)에서 노니는 것이었다. 백운이라는 명칭은 당시 사회의 상황과 불교계의 상황이 흑운과 풍운으로 즐겨 등장하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흑운과 풍운이란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난세의 기류를 상징하는 반면에 백운은 해와 달이 두둥실 떠올라 맑은 하늘가에 깨끗하게 떠 있는 한 점의 한가로운 구름을 드러내어 부처의 대자비가 구름처럼 자유자재하게 법우를 내려주는 것에 비유되었다.

백운선의 특징은 임제선을 수용하면서도 무심(無心)과 무념(無念)을 강조하여 무심선(無心禪)이라 불렸다. 그는 조주로부터 연원된 무자(無字)와 부모미생전본래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과 만법귀일(萬法歸一)을 강조하면서 화두를 무심(無心)으로 들도록 하였다. 백운은 온 대지가 다 해탈문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마음은 일체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무심의 경지에 통하는 것으로서 대상에 대하여 일체를 파악하고 느끼고 활용하면서도 그로부터 초연할 줄 아는 무심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 무심의 경지에서 대지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지가 모두 법신임을 말한다. 그리고 무심도인의 경지에서 토해내는 설법으로 스스로 깨친 자[自然覺者]임을 설하였다. 그의 무심선은 이미 중생을 부정한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까닭에 절대선(絶待禪)으로 등장하되 중생선(衆生禪)으로 드러나 보이며, 그대로 대긍정의 무사선(無事禪)으로 활작용한다. 그 경지는 모두가 범행(梵行)을 구족하여 중생국토가 그대로 동일법성이고,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이며, 유성(有性)과 무성(無性)이 나란히 불도를 성취한다.

한편 간화선을 수행의 정통으로 수입하여 펼치면서 임제종풍을 중심으로 한 제종파의 섭수를 꿈꾸었는데 그것이 마침내 조계종풍으로 표명되었다. 백운은 부처를 밖의 대상이 아닌 자심에서 추구해야 한다는 이전의 사상적인 굴레를 벗어나서 자심에서 깨침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 마음마저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심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참학의 시작이고 수행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진정한 설법은 경전에 있는 그대로를 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경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백운은 임제정종을 계승하는 방식을 긍정하면서도 조사선에 대한 새로운 수용방식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화선의 발전에도 근본적인 조사선의 입장으로 회귀시켰다. 근본적인 조사선은 당대에 선종오가의 종파가 형성되기 이전의 순수한 가풍을 말한 것으로, 일체가 그대로 수행이요 깨침이며 진여라는 즉심에 근거한 불심을 말한다. 이것이 때로는 평상심(平常心)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무사선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공안(公案)을 제시하는 기관(機關)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백운은 바로 이 점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적인 조계선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2. 태고 보우

태고 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19세 때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입참하여 수행을 하고 마침내 38세 때 깨쳤다. 46세 때 원나라에 들어가 석옥 청공(石屋淸珙, 1272~1352)을 참문하고 인가를 받아 중국의 임제종맥을 이었다. 48세 때 귀국하여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으나 신돈(辛頓)과의 불화가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신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과 태고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세력 대결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불교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세력과 정치를 배경으로 한 세력과의 대결이기도 하였다.

임제선을 수용한 태고 보우는 우선 그의 삶에서 조사선의 정신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실천하였다. 그의 선관은 화두를 궁극까지 참구함으로써 깨침을 추구하고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깨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명안종사에게 참문하여 구경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국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깨침을 경험한 이후에 원나라에 건너가 석옥 청공(石屋淸珙, ?~1352)에게 참문하여 인가를 추구하였다. 중국의 임제종맥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임제선법의 계승에 그치지 않고 고려선법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조계선법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또 수행과 깨침과 인가를 강조하였다.



고려 말 임제종 선법 전래의 중심 인물 나옹 선사 진영.

백운, 무심 · 무념 강조한 무심선
태고, 중생과 함께하는 화광동진
환암, 태고 등 여러 스승에 참학

그러나 수행법에 대해서는 널리 열린 마음을 지니고 온갖 근기를 상대로 갖가지 수행법을 제시하였는데, 염불과 정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제시한 염불의 중심은 아미타불이었다. 이 말은 본래 생사가 없는 무량수(無量壽)이고 깨침의 양태임을 나타낸 말로 사람 모두에게 안락자재한 본성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무량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미타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터득한 자가 불(佛)이고 그것에 대하여 설한 것이 교(敎)이므로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은 오직 자심의 청정을 각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로써 내내 아미타불을 염하는 마음이 화두를 참구할 때의 염념불매(念念不昧)이고 상상불매(常常不昧)라는 것이다.

한편 당시까지 내려오던 구산문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호법(護法)을 위한 의지였다. 광명사(廣明寺)에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고 구산문(九山門)을 통합하여 일문(一門)으로 만들려는 것은 모두 일불(一佛)의 마음으로부터 유래한 본래성으로 돌아가려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규와 관련된 전적을 간행하였다. 아울러 국왕과 부모와 스승과 시주자와 도반에 대한 다섯 가지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의식작법으로 의례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순중생을 내세워 어디까지나 중생과 함께 하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선풍을 주장하여 스스로 깨침의 기연이 된 만법귀일(萬法歸一)을 비롯한 잡화삼매(雜華三昧)의 화엄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3) 환암 혼수

고려 말기에 백운과 태고 및 나옹에게 보이는 선수행의 주류는 간화선의 수행법이었다. 그것은 지눌이 송대의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간화선 수행법을 수입한 이래로 고려 말기에 재차 원대에서 수입한 간화선 수행법의 융합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환암 혼수(幻菴混修, 1320~1392)에 의하여 기타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의 간화선 수행법도 아울러 전승되었다. 혼수는 고려 말기 태고 보우 및 나옹 혜근의 사법제자로서 휘는 혼수(混修)이고 자는 무작(無作)이며 호는 환암(幻菴)이다. 태고 보우의 〈행장〉 의하면 혼수는 태고 보우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환암 혼수의 〈비문〉 및 나옹의 〈행장〉과 〈어록〉 그리고 〈나옹석종비음기(懶翁石鍾碑陰記)〉 등에 의하면 나옹 혜근의 법맥을 계승하였다. 이처럼 혼수가 여러 스승으로 참학한 경우를 종합해보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12세 전후에 계송(繼松) 스님을 따라 내전과 외전을 널리 공부하였다. 둘째는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의 식영감(息影鑑)에게 참문하여 〈능엄경〉의 25가지 방편수행을 수학하였다. 셋째는 고운암(孤雲庵)의 나옹 혜근을 찾아가 문답을 나누고 입실하였다. 넷째는 태고 보우의 문도에 이름이 올라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보면 첫째의 계송은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에게 사사한 인물이다. 둘째의 식영감은 각엄복구(覺儼復丘)의 문도이면서 식영감이 주석했던 신원사는 몽산 덕이의 제자인 철산 소경(鐵山紹瓊)이 주석한 곳이기도 하므로 역시 몽산의 선풍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영감이 직접적으로 철산 소경의 법을 계승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셋째의 오대산 신성암(神聖庵)에 주석할 때에 가까운 고운암(孤雲庵)에 주석하고 있던 나옹 혜근(懶翁慧勤)과 문답을 나누어 나옹 혜근으로부터 입실을 허락받았다. 이때 나옹은 그 징표로 금란가사(金襴袈裟)와 상아로 만든 불자(拂子)와 주장자(拄杖子)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나옹이 주관한 공부선(功夫選)에 응시하여 혼수만 답변하여 인정을 받았다. 넷째의 경우는 태고 보우의 행장으로부터 18세기에 간행된 〈해동불조원류(海東佛祖源流)〉에 이르도록 보편화된 설이다. 특히 편양 언기의 〈종봉영당기(種峯影堂記)〉와 이식(李植)이 〈청허당집(淸虛堂集)〉에 붙인 '서문'과 이정구(李廷龜)가 쓴 청허의 '비문' 등 17세기에 출현한 법통설의 계보에서는 압도적이다.

이 가운데 넷째의 경우에 대해서는 태고 보우의 법계를 계승했다는 것, 나옹 혜근의 문도라는 것, 보조 지눌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것, 나옹과 태고의 법계를 모두 계승했다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그만한 논지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각각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법계의 확정은 각각의 종파나 문중이 그에 따라서 오늘날 정통으로 혹은 방계로 취급받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 관련하여 장구한 선의 역사에서 선이 단순히 수행의 일종이거나 사상의 편린이라는 단편적인 측면을 넘어서 선종이라는 집단으로 출현한 이후에는 어떤 점이 가장 중시되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선이 선수행과 선법 내지 선사상의 범주에 머물고 있었던 인도불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깨침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선이 한자문화권에 전승되면서 선종으로 정립되면서부터 깨침을 바탕으로 하여 그 전법이 더욱더 중요시되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깨침을 터득했는가보다 누구로부터 인가를 받았느냐가 중시되었다. 곧 깨침은 어디까지나 스승의 지도를 받아 자신이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내증(自內證)의 문제이지만 전법과 인가는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로부터 인가받았는가 하는 점은 곧 대의와 명분을 중시했던 사회에서는 자체의 집단이 생존과 번영을 구가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제였다. 이로써 선종에서는 깨침은 전법의 필요조건으로서 중시되었다.

나아가서 부처님의 본의가 지혜와 자비에 근거한 중생제도라는 최상승(最上乘)과 대승(大乘)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불조혜명의 계승을 내세우는 선종에서는 전법으로만 그 본래적인 의의를 다할 수는 없었다. 이로써 전법의 중시는 당시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했느냐 하는 대중의 접화라는 조건을 아울러 중시하게 되었다. 깨침과 전법은 각각 대중을 접화하고 집단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접화라는 교화의 직접적인 목적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에서 집단을 이끌어 나아가고 제자를 배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현실적이면서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전법의 궁극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깨쳤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인가받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떤 교화를 했는가에 따라서 당시의 대중들과 국가로부터의 호응을 받는 척도가 되었다. 고려 말기에 태고 보우와 백운 경한 등에게서 보이는 역할은 나아가서 그 법계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방송시설 전문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현장설치가격포함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슛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현장설치가격포함 ₩ 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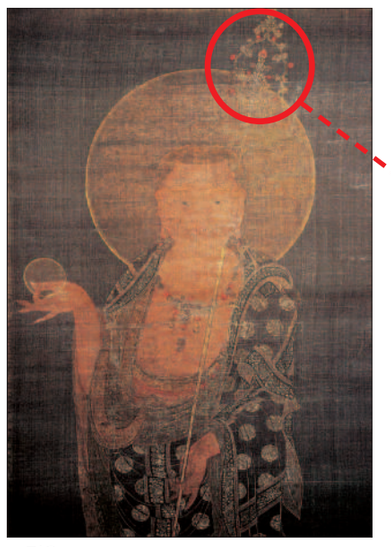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⑲ 스미소니언 〈지장보살도〉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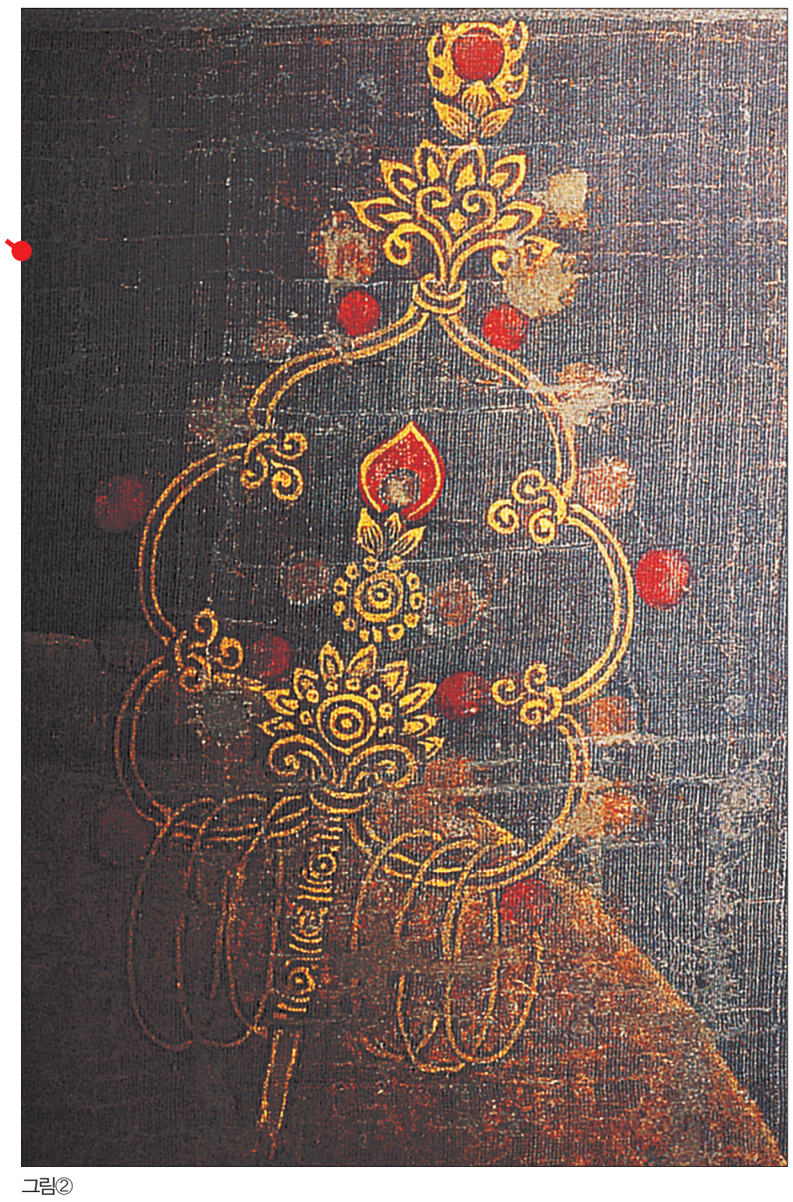
▶ 한줄 요약
지장보살은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보살 중 유일하게 삭발을 하고 있다. 이는 "지장보살은 성문의 모습으로 나툰다"는 경전에 근거한 것으로, 중생의 눈높이에서 제도하기 위해 선택한 방편이다.

지장보살, 삭발한 이유 '방편교화' 때문

지장보살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많은 보살 중, 유일하게 머리를 깎은 모습이다. 머리카락을 밀어서 파스라니 두피가 드러난 삭발의 형상이다. 보통 보살의 조형은 화려하게 장엄된다. 특히 머리 장엄은 해당 보살의 역할 및 상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상이다. '보살'이라는 존격은 '세상을 장엄하는 아름다고 고결한 에너지' 그 자체이기에, 그것을 보관과 장식, 그리고 의상으로 최대한 눈부시게 표현한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프리어 갤러리 소장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상반신 부분.

그림②. 지장보살이 지옥문을 여는 '금석주장(육환장)'를 들고 있다. 이는 육도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을 상징한다. 또한 삭발한 승려로 나투는 것도 중생의 방편 교화를 위해서다.

지장보살만의 특징인 삭발모습
"聲聞 모습 나툰다" 경전 근거
중생 눈높이 맞춰 나툼을 의미
육환장도 六道 중생 구제 상징

'스님' 모습의 지장보살, 어째서?

그런데 지장보살은 삭발 머리에 단출한 차림새이다. 그래서 다양한 보살 형상 중에 가장 구분하기가 쉽다. 종종 삭발한 머리에 손수건 같은 천으로 두건을 쓰는 경우가 있어, '두건 지장' 또는 '피건 지장'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민머리가 기본이다. 그러면 지장보살은 왜 삭발한 모습일까? 특이한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왜 다른 보살처럼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습은 "지장보살은 성문(聲聞)의 모습으로 몸을 나투신다"라고 경전 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성문이란 승려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스님의 모습으로 몸을 나투신다는 것이다. 왜 보살의 모습이 아니라 승려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생의 눈높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根機)'를 말한다. 중생의 수준에서는 보살을 볼 수 없다. 중생의 낮은 근기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 여기에 여여(如如)하게 존재하건만, 중생은 자신의 업장에 가려 보지 못한다. 그렇기에 중생이 볼 수 있도록 스님의 모습을 갖추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눈높이 교육'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 교화'의 핵심이다.

불교에서는 중생구제 또는 중생교화의 핵심 원리로 '방편(方便)'을 내세운다. 방편이란 '편리한 방법'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중생의 마음을 해탈로 이끈다는 것이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어 달래야지, 그 앞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대의 현재 상태와 수준에 맞춘 맞춤 교육이다.

이러한 방편의 교화는 많은 대승경전에 나타난다. 보살의 무한한 인내와 자비, 분신 · 화신 · 응신 등의 신통으로 나타난다. 그 내용을 보면 실로 가공할 만한 예술의 경지이다. 지장보살은 무수한 '성문(승려)의 분신' 모습으로, 자증(慈增)보살은 '아귀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의 모습으로, 중생 각각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타나 그를 구제한다.

'눈높이 교육', 방편 교화의 핵심

이러한 신통력은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투철한 자비 정신에서 나온다. 응신(또는 화신)이란 수승한 보살도(菩薩道)의 경지에서 부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나의 사심을 빼고, 그저 온건히 상대만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 따뜻한 배려 한 번만 해도 '그 순간 보살이다'라고 대승불교는 말한다. 대승불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주는 마음'인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가 힘든 게 아니다. 그저 '사심 없이 지금 당장 마음내라'라는 것이다.

〈지장경〉의 '도리천궁에서의 신통(제1품)'에는 "지장보살이 어떻게 불가사의한 신통으로 저 많은 중생들을 구했으며 또 현재에도 구하고 있는지" 묻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부처님은 그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짓고 원(願)을 세웠는지 말해준다. '원(願)'이란 서원의 줄임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생 목표를 말한다. 그는 전생에 큰 장자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바라문의 딸이기도 했다. 항상 수승한 조건으로 태어나지만, 인생 목표를 무조건 중생구제로 정하고, 일생을 중생구제에 헌신하기를 수십 수 겁의 생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그 무량한 공덕으로, 악업 중에서도 가장 심한 악업을 지은 '삼악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갖추게 되었다.

'분신' 신통의 원조, 지장보살

그 신통력 중에 하나가 분신법이다.

"중생의 무리는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어 그들을 제도한다. 때로는 남자의 몸으로 때로는 여자의 몸으로, 때로는 천룡의 몸으로 때로는 귀신의 몸으로 나타난다. 산, 숲, 강, 연못, 우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한다. (중략) 나는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억세고 거친 죄업의 과보로 고통 받고 있어, 매우 교화하기 힘든 중생을 제도 하느니라.(제2품 분신집회품 中)"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저는 저의 분신으로 백천만 억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마다 백천 만억의 몸을 나투어 한 분신이 백천만 억 사람을 제도하고 삼보에 귀의케 하여 영원히 생사의 고통을 여의고 열반의 기쁨을 맛보게 하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서유기 소설에 나오는 손오공이 부리는 신통 중 하나가 분신법이다. 자신의 머리칼을 하나 뽑아 "후~"하고 불면 수십 수만 구의 손오공 분신이 나타나 적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분신법의 원조가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모든 지옥마다 분신을 보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양한 지옥의 풍경을 그린 〈지장시왕도〉는 총 10폭의 화폭으로 구성되는데, 화폭 속의 지옥마다 지장이 등장한다. 마치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지장시왕도를 친견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지장보살의 작은 분신을 찾아보기 바란다. 어김없이, 아비지옥에서 화탕지옥까지 지장보살의 분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장보살의 모습은 영락없는 스님의 모습이다. 민머리에 가사 장삼을 걸치고, 화려한 장신구는 생략했다. '악업 중생은 내게 맡겨라'라는 그의 당당한 포부. "미륵불이 미래에 출현할 때까지 육도(六道: 천, 인,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라고 커다란 서원을 세웠기에, 지장보살은 '대원본존(大願本尊)' 지장보살로 통한다.

이렇게 천계에서 지옥계에 이르기까지 육도(여섯 개의 세상)를 분주히 다 넘나들며, 물밀 듯 밀려드는 악업 중생을 구하자면 너무 바쁘다. 특히 그가 강조한 삼악도에 떨어진 일체중생을 모두 건져내려면, 높은 보관에 화려한 장식의 차림새로는 무리겠다. 거추장스런 복장이 아닌 간단하고 날렵한 의관에 민머리를 갖춘 스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해가 간다. 물론 중생의 눈높이로 볼 수 있는 수승한 존재의 상한치가 스님이기에 그 모습을 하고 있다.

지장, 악업중생 담당 전문 보살

그래서 간단한 차림새에 자신의 분신까지 만들게 되었다. 〈지장시왕도〉를 보면, 지옥의 형벌 현장에서 중생을 구제하랴, 죄지은 중생들 변호하랴, 염라대왕을 설득하느라 참으로 분주한 지장보살의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옥계와 인간계에서 가장 악독한 업을 짓는 중생들을 담당하기에, 지장보살은 '유명교주(幽冥教主)' 또는 '남방화주(南方化主)'로 지칭되기도 한다. '유명'이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계인 저승을 말하고, '남방'이란 남염부제를 지칭하여, 중생이 사는 인간계를 말한다. 저승과 현실의 악업 중생을 전담하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악업 중생 앞에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우리 앞에 계신 스님 중에 그 누가 지장보살의 분신일지 모른다. 아니, 스님들은 모두 지장보살의 분신이라 할 수 있겠다.

지장보살은 '금석장과 여의주'를 그 대표적 지물로 가지고 있다. 붉은 보석이 알알이 박힌 금석장(그림②)을 어깨에 걸치고 석장 대를 왼손으로 살짝 잡아 바치고 있다. 여섯 개의 둥근 고리가 달려있어 '육환장'이라고도 하는데, 여섯 개의 고리는 육도(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세상)를 상징한다. 석장은 그 누구도 열 수 없다는 아비지옥의 문까지 열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다.

"자비스러운 인으로 선근을 쌓아 맹세코 중생을 구제해내는 (지장보살이) 손 가운데 가진 금석주장을 떨치면 지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손바닥 위에 밝은 구슬의 광명은 널리 대천세계를 비추나니(〈지장경계청〉)"라고 쓰여 있어, 석장과 여의주의 기능을 명료히 알 수 있다. 지장보살은 석장을 떨쳐서 악업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단박에 열어 준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혜원사
• 주 지 : 혜명 (속명 : 김영범)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47번길 10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박원자의 母情佛心 ⑲ 효석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봉녕사 승가대학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효석 스님은 동국대서 불교를 전공하고, 인도서 문화인류학으로 석 · 박사를 받고 출가했다. 평소 신심이 돈독했던 어머니는 딸의 출가를 적극 지원했다. 딸이 사미니계를 받고 큰 절을 올리자 "스님 딸을 두어 영광입니다"라고 했다.

"스님 딸을 두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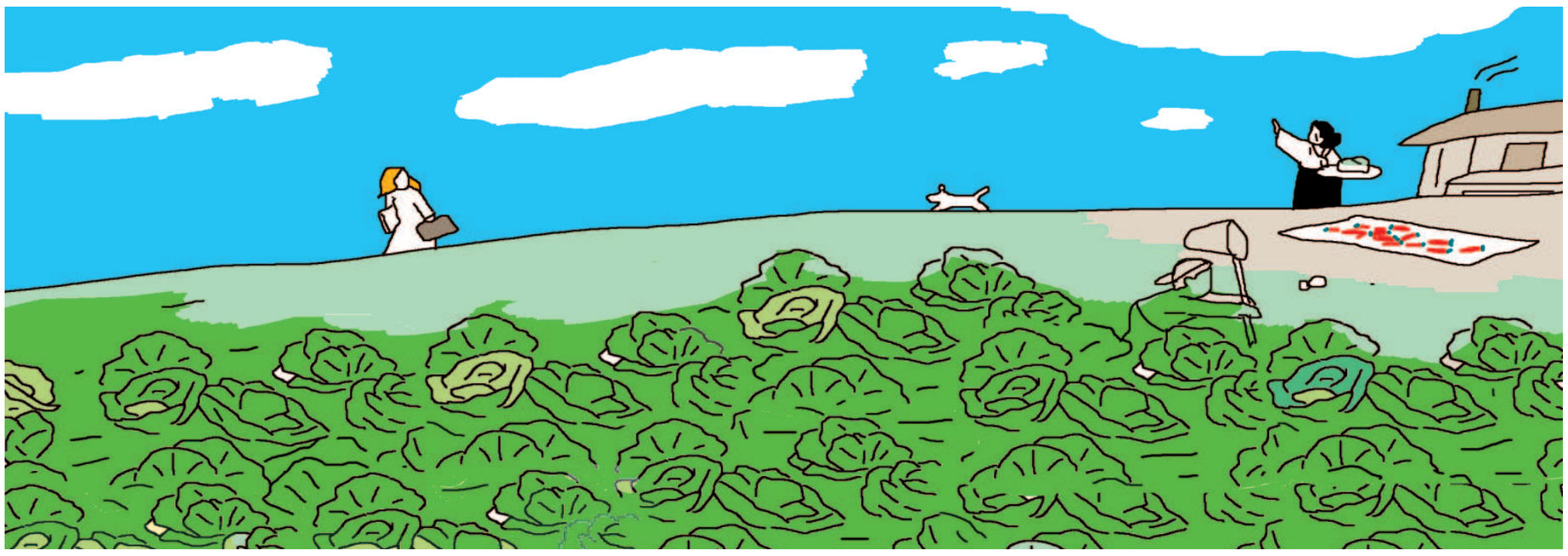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서울 법룡사 비구니회관에서 만난 효석 스님은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쳐보였다. 매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굉장히 젊어보였는데 올해 51살이라고 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는 한편, 은사인 본각 스님(전국비구니회장)을 시봉하고 있다.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인도로 유학을 떠나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뿌나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델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을 끝내고 매일 앉아서 공부하느라 뒤틀린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100년 전통의 요가연구소에서 요가를 배워 아예 자격증까지 따고 왔다는 이 씩씩한 스님은 출가하는 날의 풍경부터 남달랐다.

"오빠 거사가 운전하는 차에 쌀을 두 가마니를 싣고 노트북이며 쓰던 카메라, 불교 관련 책들을 잔뜩 싣고 절로 들어가는 언덕을 올라가는데 다시 유학 가는 기분이었어요."

"출가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어머니는 당신도 출가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 출가를 반가워하고 좋아하셨죠. 출가해서 공부할까, 공부하고 나서 출가할까 고민하다가 유학을 갔거든요. 다녀와 모교에서 여름 계절학기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출가한다면서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채근했을 정도니까요."

출가하기 며칠 전 어머니는 속옷부터 절에 들어가는 날에 입을 외출복, 기도할 때 입을 옷까지 전부 숯불을 들여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아래위로 온통 먹물 색깔의 옷을 입은 채 노트북을 들고 절 문에 들어가는 신세대 스님의 출가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그려졌다.

"출가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같던가요?"

"너무 좋았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하루 중 적어도 한 시간은 좌선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출가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출가 사찰인 금장사(서울 홍은동)에 들어와 보니 새벽예불 후 반드시 한 시간씩 기도하고 좌선하는 거예요. 예불이나 공양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게으른 생활은 용납함이 없는 생활이 제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딱 맞아 너무 감사했어요."

"출가 한 후 어머니께서는 따님이 있는 절에 더러 오셨나요?"

"경기도 구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가을 추수가 끝나면 쌀을 스무 가마니씩 싣고 오셨죠. 절이 집과 가까우니까 농사지은 채소들을 차에 가득 싣고 오곤 하셨어요. 어머니가 싣고 온 야채 덕분에 부식비가 안 들 정도였으니까요."

딸의 출가를 이렇듯 적극 지지한 스님의 어머니가 궁금했다.

스님의 어머니는 21살에 시집와서 22살에 첫 아들을 낳고 밑으로 아들딸 셋을 더 두었다. 농사짓는 가난한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는 살림에 관심이 없었다.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었다. 팔을 걷어부치고 부지런히 농사짓고 야무지게 살림했다. 시동생, 시누이들을 돌봐 시집 장가를 보내고 자식들을 키웠다. 그 가운데 유일한 기쁨은 절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였다. 새벽에 밭에 다녀오면 으레 독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밥을 했다. 독경 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리곤 했다. 저녁에도 하루 종일 일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부비며 3천주를 돌렸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돌리던 염주가 반들반들해졌다.

오로지 가족, 내 자식들의 무사를 비는 기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불교가 변하기 시작했다. 막내딸이 불교학과를 다니기 시작하던 즈음이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하는 아비라 기도를 다니면서 교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지견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아마도 눈앞의 이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가는 꿈과 같아서 그 무엇에도 애착을 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으리라. 그리고 알았으리라, 허깨비와 같은 몸을 가진 가짜의 나가 아닌 '참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불법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법문을 듣고 오면 메모해 와서 어머니께 다시 들려주곤 했다. 두 분이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이 아직도 스님의 뇌리에 생생히 남아있다.

어머니의 정진이 날로 깊어지자 주변에도 훌륭한 도반이 늘어났다. 자녀들이 출가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삭발하고 조계종이 아닌 타 종단으로 출가했다. 두 분의 발걸음은 전국의 선방으로 향했다. 농한기가 되면 인천 용화사 선방, 해인사 원당암, 부산 안국선원 등으로 가서 정진했다.

"기도 수행해야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여실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죠."

아비라 기도했던 신심 돈독 모친
인도 유학 딸 귀국하자 출가 권유
농사 지은 쌀 · 채소 사찰에 보내
딸 출가 4년 뒤 암 진단받고 별세
와병 직전까지 반찬 봉사한 보살

그 즈음이었다. 어머니가 불교학과에 다니는 막내딸의 심중을 은근히 떠보았다.

"아무개 보살님 딸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부러운 듯이 말씀하는 어머니에게서 스님은 출가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다. 앞의 세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봤으니 하나쯤은 부처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안 것은 유학중 방학 때 집에 다니러왔을 때다. 친척들이 서른이 넘은 딸을 둔 어머니에게 물었다.

"시집 안 보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대답했다.

"시집가서 뭐하게? 저 아이는 나하고 살 거야."

깊은 속내는 묻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당신도 출가해서 한 절에서 딸과 함께 사는 미래를 꿈꾸었던 것 같다.

"입버릇처럼 당신도 출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비라 기도를 다니다보니 곁에 신심이 짱짱한 보살님들 가운데 남편과 자식을 두고 출가하는 도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이 출가하자 비린 음식을 요리하지 않았다. 한번은 영농조합에서 조합원인 아버지에게 조기 한 꾸러미를 선물했는데 결혼한 자식들에게 주어버렸다. 아버지가 이를 알고 서운해 했다는 이야기를 딸 스님에게 했다고 한다. 철저하게 음식 먹는 것을 가리고 짠지만을 드시며 출가한 자식처럼 수행했던 어머니는 딸이 행자생활을 마치고 사미니계를 받고 삭발한 딸을 처음 보았던 던 날, 출가자가 된 따님의 절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스님 딸을 두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스님은 지금도 어머니의 그 말씀을 잊지 못하고 산다. 자신의 출가가 어머니의 삶에 영광이 되었으니 수행자로서 철저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딸이 출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두 시간씩 기도하고 밭에 나가 채소를 따서 딸 스님 절로 가져다주던 어머니는 딸 스님이 출가한지 4년 만에 돌아가셨다.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다른 사람 돌보는 것에만 도가 트인 분이었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해본 적도 없었으니 당신 몸이 그렇게 아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만드는 봉사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십여 년 동안 하셨어도 자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죠."

마침 방학 중이어서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간병을 해드렸다. 오랜 동안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하루 108독씩 하던 것을 알던 스님이 물었다.

"엄마, 신묘장구대다라니 하고 계시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어머니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른아홉의 스님은 함께 수행자로 한 절에 사는 것을 꿈꾸었던 어머니와 그렇게 작별했다. 어머니는 이별하기에는 아직 이른 예순 아홉이었다.

"어머니들이 좀 자신만의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성실하게만 사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좀 게으르게 늦잠을 자기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아버지 혼자 계셔서 안 된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나 어쩌랴.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어머니들의 숙명인데.

스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암의 발병 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다가 웃음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후 요가 지도를 하면서 마지막 10분은 웃음요가를 곁들이게 되었다. 늘 작았던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님을 보면 즐겁다고 말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나 싶다.

스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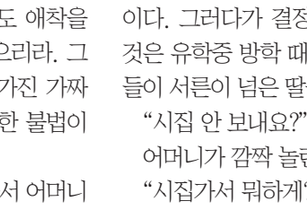
"매사 소심하고 수동적이었던 20대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명상했어요. '나는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 나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오늘은 새로운 나로 시작할(깨어날) 것이다.'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거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출가의 길은 작은 나를 떠나 큰 나, 무아의 세계로 건너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님의 어머니가 꿈꾸었던 출가도 저 무아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작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풍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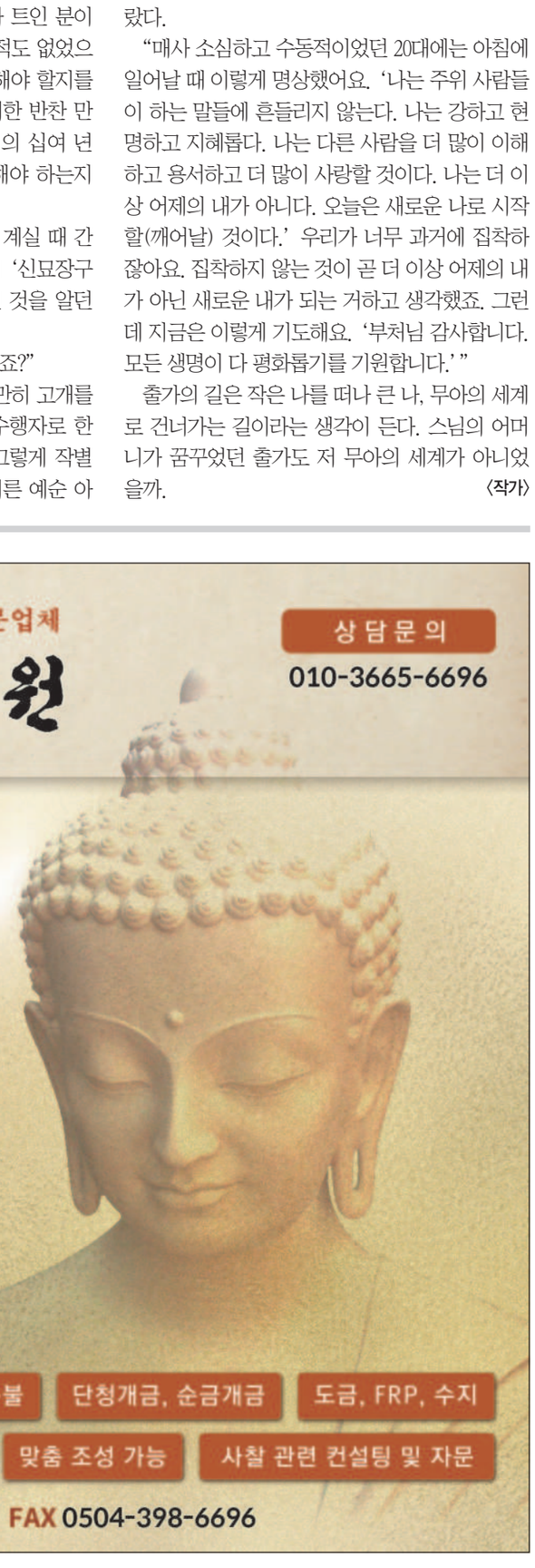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중생 괴로움 없애주는 경전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㊲ 성불

"수왕화여, 이 경은 능히 일체중생을 구원하며, 이 경은 일체중생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경은 능히 일체중생을 크게 이롭게 하여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느니라. 마치 시원한 샘물이 모든 목마른 이를 만족시켜 주는 듯하며, 추운 이가 불을 얻은 듯하며, 벌거벗은 이가 옷을 얻은 듯하며, 장사치가 물주(物主)를 만난 듯하며, 아들이 어미를 만난 듯하며, 물을 건너려는 이가 배를 만난 듯하며, 환자가 의사를 만난 듯하며,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듯하며,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은 듯하며, 백성이 임금을 만난 듯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는 듯하며, 횃불이 어둠을 몰아냄과 같으니,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중생의 모든 고통과 모든 병을 여의게 하며, 모든 중생의 생사 속박을 풀어주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면 그가 얻을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헤아린다 하여도 다 알 수가 없느니라. 만약 이 경전을 쓰고 나서 꽃과 향, 영락과 소향, 말향, 도향과 번개, 의복과 갖가지의 등 - 소등과 유등, 온갖 향유등, 첨복유등과 수만나유등, 바라라유등, 바리사가유등과 나바마리유등으로 공양하면 얻는 공덕 또한 한량이 없으리라. 수왕화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을 들으면 또한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약 여인이 이 약왕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수지하면 이 몸이 다한 뒤에는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 하리라. 또 여래가 멸도하신 후 후오백세에 만약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 그대로 수행하면 목숨을 마치고 난 뒤 곧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큰 보살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가서 연꽃 속의 보배로 된 자리 위에 태어나 다시는 탐욕의 괴로움이 없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괴로움도 없고 교만과 질투 따위의 괴로움도 없으리라. 보살의 신통과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을 것이며, 이 법인을 얻고 눈이 청정해져서 이 청정한 눈으로 7백만 2천억나유타 항하 모래알 수의 여러 부처님을 뵙게 되리라."

불교의 종교적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할 때 전미개오(轉迷開悟)와 이고득락(離苦得樂) 그리고 지악수선(止惡修善)이라고 말한다. 중생의 미혹을 깨달음으로 전환하고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며,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나누어 그 목적을 말해 놓은 것이다. 이 장(章)에 와서 〈법화경〉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고득락을 성취하게 한다는 말로 이는 정(定)의 목적이고 신앙의 결과를 말해 놓은 것이다. 불교는 종교이지만 철학과 신앙, 윤리의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정립되어 있다. 이는 삼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말해 본 것이다.

〈법화경〉의 공덕과 그 이익은 〈약왕보살〉 본사품에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다. 생사의 속박을 풀어준다는 극찬의 말도 있다. 사경의 공덕, 한 번 들은 일문(一聞)의 공덕까지 밝히며 법화의 가피가 그대로 부처님 가피로 설해져 있다.

또 〈법화경〉의 수행 공덕으로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정토신앙과 같은 말도 있다. 마치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서도 정토왕생의 길을 설해 놓은 것처럼 〈법화경〉을 통해서도 정토왕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대승경전에서 설해진 법문의 요지가 서로 상통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오백세는 말세를 말한다. 〈법화경〉이 말세 중생들 왕생의 길도 열어준다는 이야기다. 물론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삼부경〉처럼 정토왕생을 전적으로 설해 놓지는 않았지만,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도 정토왕생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은 두 경전이 대승경전의 모든 내용을 포섭하고 있음을 뜻한다. 세친의 〈법화경론〉에 나오는 〈법화경〉의 다른 이름 중에 '무량의경'이란 이름과 '최상법문'이란 이름이 있듯이 〈법화경〉이 한량없는 뜻의 법문을 설하고 있으며, 최상의 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므로 성불을 보장하는 최적의 경이며, 항하 모래알 수의 부처님을 뵙게 된다고 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불교계율, 이 시대 나침반 될 수 있을까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㊲ 근현대불교와 계율

동아시아에 뿌리를 내린 불교는 분명히 인도불교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다. 즉, 인도불교는 중국적인 불교로 변모했으며, 중국화된 불교는 한국과 일본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불교는 외래문물이라기보다는 선진문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와 왕실의 주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번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독자적인 불교사상과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근세의 동아시아 각국에서 유교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불교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불교의 지위는 점점 낮아졌으며, 승려들의 자질과 교육수준도 점점 떨어졌다. 일부 승려들은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처럼 불교는 주류문화에서 밀려나게 되었지만, 불교 신앙은 민간의 습속(習俗)을 흡수하여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열강에 의해 달갑지 않은 근대화를 맞닥뜨리게 된다. 별다른 충돌 없이 근대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불교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된다. 서양에서 발달한 근대적 불교학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연구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 시작은 16세기 후반의 예수회에 의한 것이었으며,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이었다. 일본의 유력 종파들은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 교단과 승려교육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유학생을 서양에 파견하여 근대불교학을 배우게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일본에서 불교는 근대사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일본화된 근대 불교학은 한국과 중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근대 한국불교는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불교를 근대불교의 모델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설치한 조선총독부는 사찰령을 반포하여 한국의 불교계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여 한국불교계는 한국의 선종이 임제종(臨濟宗) 계통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한국불교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게 됐다.

동아시아에서 근대적 불교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 전통의 붕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불교계에 찾아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보살에 대한 숭배와 정체 모를 의례가 한동안 유행하기도 했다. 미국의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는 근대화 과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아시아 불교계의 모습을 실망스럽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종교체험의 기회였고 험난하기만 했던 사찰 순례의 여로는 어느새 고속도로가 놓인 길로 변했고 주변에는 호텔과 유흥시설이 즐비하다. 또 경건해야 할 장소인 사찰은 관광명소로 둔갑하여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편안함은 금욕주의를 무너뜨리지만, 지나친 소비의 거부는 극단적인 종교광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전쟁과 정치적 혼란을 넘어선 현대는 어떤가? 현대사회는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기술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 삶의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수무책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불교사상 내지는 계율이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⑬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마음의 의도가 바로 業

5. 업(業)의 의미

불자 여러분! '업(業)'이라는 말은 인도 빨리어로 '깜마'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Karma)'라고 합니다. 'karma'는 'Kar[作]'와 'ma[事]'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까르마의 의미는 업(業), 지음(作), 업을 지음(作業), 소작(所作), 소행(所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지고, 갈마(羯磨)라고 음역합니다. 업(業)이란 결과를 낳는 의도적 행동을 말합니다.

〈앙굿따라 니까야〉의 '꿰뚫는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의도를 업이라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은 '의도를 가진 행동'을 말합니다. 즉 마음의 의도가 바로 업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 창조자의 섭리나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시면서,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숙명이나 절대 창조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던 내 삶의 모든 조건들은 사실 모두 스스로가 지은 업에 따른 과보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 삶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업에 대한 사상들은 이미 고대인도 바라문의 베다종교에서부터 설명되었지만 체계화된 업설은 〈우파니샤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찬도갸 우파니샤드〉에서는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고 하였고 〈브리하트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서는 '그들(우파니샤드의 話者)이 말한 것은 업(業)이다. 그들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행동으로 성립
각자 삶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자신의 것
"樂과 苦, 연하여 생기고 접촉 연하는 것"

칭송한 것은 업이다.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善人)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惡人)이 된다.' 고 하는 등으로 이미 우파니샤드로 오면서 업에 대한 의미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론적 업설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이 브라만의 업설에 대한 사상들을 불교의 사상체계로 받아들여 발전시켰습니다.

중생이 현생에서 선한 행동이건 악한 행동이건 간에 몸과 마음과 입으로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저지른 그 카르마(karma, 業)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상은 불교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인도 브라만교의 업설과 불교의 업설은 다릅니다. 브라만교의 업설은 숙명론적인 입장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불교는 바라문들이 주장하는 자작설, 타작설, 우연설 등을 모두 부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연기론적 토대에서 세운 업설이기 때문에 브라만교의 업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에 의거한 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을 만들게 된 근본 원인은 무명(無知) 때문이고, 그 무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가 생겨나 업을 짓게 된다는 연기법을 토대로 업을 재조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쌍윳따니까야〉에서 "락(樂)과 고(苦)란 연하여 생기하는 것(緣起生)이며, 접촉(觸)을 연하는 것이다. 현자들은 이와 같이 업을 여실히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들이며, 업의 과보를 숙지하고 있는 자들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은 연기법에 의거한 업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을 짓는데(作) 있어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 즉 자율성과 의지를 업의 가장 중요한 제1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9호 | 17 | 전면광고

연상의 여인은 어머니처럼 여기고 중년의 여인은 누이처럼 여기며 젊은 여인은 딸처럼 여겨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본생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사, 대사, 종사, 율사, 종무사, 종신사, 종학사, 교학사
◆ 포교계위, 법사법위, 종법성위증 부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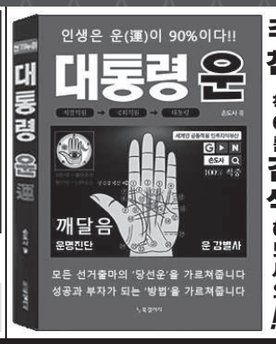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 단청, 탱화, 개금 ❋❋❋

사찰신축, 보수, 기와
화공기능보유자
010-9387-1518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8352-6042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 것을 마음대로

특수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 스님 무속인 환영 · 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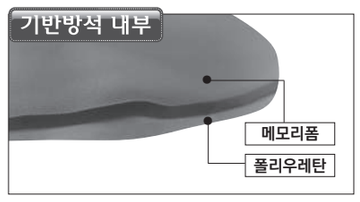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9호 | 18 | 전면광고

너희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릴 줄 알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항상 안락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양산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218평
●건평 : 1층요사42평, 2층대웅전 26평,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산신각,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공원 묘지부근
●건강상 싯가이하로8억5천에 양도함
●가격 : 절충

010-6425-8274

기도 도량 안내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협의가능)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토 굴(급) 안 내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3분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있음
●풍광수려, 주차공간 넉넉함
●보1천, 월40만(시설비5백만)
●살아보신 후 양도도 가능

010-7121-3030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 감곡kt에서7분거리
●대지 계획관리 550평 요양원 및 별장으로 공사했습니다
●사찰, 요양원, 최고급 펜션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010-5883-2255

사찰안내 가람

●강원도 원주시
●부지총면적 : 4853㎡(1468평)
●건물총면적 : 265.96㎡(80평)
●가액 : 10억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토 굴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 강남권 45분
●스님토굴, 전원주택형 수익성 양호
●대지 210평, 건평 40평
●긴 복도형, 지열, 난방비 최소, 3백년 느티나무, 불자
●가격협의

010-6285-3703

별장토굴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대지면적 약 전체 2800평
●정리된(벌목) 임야 약 2천평 (지목 대지 포함)계곡접하고 있음, 국유지 300만평 접함
●건 물 : 없음
●가 액 : 6천만원

010-4124-77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가액 : 1억

010-4156-3779

토 지 안 내

●위치 : 경북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300평, 836번지 130평 총 430평(샘물나옴)
●포크레인 작업 완료(3년전)
●암자, 산소, 별장(자리적당)
●급양도 3천7백5십만원

010-7628-9997

불자공인중개사안내

●사찰, 암자, 터, 양도양수 경력많음
●신도 많은 경남·북지역 정보(거래)많음
●일처리가 원만하고 비밀엄수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불자업소 공신공인중개사

010-4857-0027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건평 : 60평
●11년차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가액 : 절충

010-3714-1018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무학대사 수행동굴 있는곳
●대지 410평, 임야220평 임법당 13평, 요사채 52평
●가액 : 3억5천만원

010-2078-9595

포 교 당 안 내

●마산 포교당 22평
●롯데백화점 이면도로 앞, 위치 최상
●보300만, 월30만
●1천만원(시설)
●몸만 오시면 됨

010-7169-9878

사 찰 안 내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지 : 335평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독채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5만원
●시설금 1천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사 찰(급) 안 내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가액 : 6억 5천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고성사찰(급)안내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사 찰 안 내

●대지 1,700평, 법당 60평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예쁜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대지 : 약 200평
●건물 : 법당1동 17평(단청)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가액 : 3억 5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포항시청앞)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트 사용
●법당,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7219-00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2층 30평
●보증금 : 2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수 스님의 5분 명상

상처와 치유

상처를 건드리면 아파요.

몸도 마음도 똑같아요.

적당한 환경을 만들면 상처는 저절로 나아요.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은 긁는 것과 같아요.

더 안 좋아질 뿐이죠.

도망치는 것은 덮어 놓는 것과 같아요.

숨을 못 쉬니까 낫지 않아요.

치유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주기 위해 상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처를 깊이 느끼면서 있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의 길입니다.





김종미 교수의 차와 사람을 잇다 ⑱ 통무관 정산소종

달콤한 몰트향 속에 깊은 산운이 담겨

찻잎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은 말을 하고픈 차는 '홍차'일 것입니다. 차는 본디 착한 물건이라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고 착해져야 하는데 차를 마시겠다고 약탈을 하고 전쟁을 벌였으니, 차가 보기에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나는 찻잎을 주었는데, 너는 아편을 주었구나!" 아편전쟁은 인류의 아픈 역사입니다. 영국이 홍차대금으로 막대한 은을 지불하고 영 · 중 무역적자가 심해지자 은 대신 아편을 갖다 주는 악책을 썼지요. 하지만 중국 관료들은 또 차를 재배하는 차농들을 핍박하여 헐값에 차를 바치도록 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차농들이 도망다닌 역사도 있었지요. 영국은 중국을, 중국은 차농을 겁박하여 차를 뺏고 빼앗기는 역사를 되풀이 했습니다. 하늘이 청명한 이 가을의 아침, 동목관 정산소종을 마시며 뺏고 빼앗기는 게임을 그만하자고 주문을 걸어봅니다.

홍차는 세계 차 소비량의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차입니다. 브랙퍼스트티, 애프터눈티로 홍차문화를 주도한 것은 영국이지만 홍차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홍차는 1610년 유럽으로 유입되어 1662년 포르투갈의 캐서린 공주가 영국 찰스2세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가져가서 영국 황실과 귀족사회에 전파되어 대유행하였어요.

유럽인을 매료시킨 중국홍차의 정식명칭은 '정산소종' 입니다. 유럽에서는 정산소종을 WUYI BOHEA, 또는 랍상소우총이라고 부릅니다. 정산소종의 탄생은 우연이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통무관 정산소종.

명나라를 설립한 주원장은 송나라까지 유행한 병차(떡차)를 금지하고 산차(잎차)를 마시도록 법령을 제정하였고, 공차원을 우이산에 설치하여 우이산 일대의 차문화가 크게 흥성했습니다. 명나라 중후기의 어느 날, 명나라 군대가 통무관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차농이 이른 아침에 이슬이 마를 무렵 찻잎을 따서 쌓아놓고 차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는 당일 채엽, 당일 제다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군인들 수발을 드느라 차를 덖을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군인들이 떠나간 후 수북이 쌓인 찻잎을 바라보니 축축하니 시들고 거뭇거뭇 산화되어 있었습니다. 차농은 자식같이 알뜰살뜰 키워온 찻잎이 아까워 차마 버리지 못하고 소나무 장작을 때서 찻잎을 말렸는데 찻잎은 검붉어지고 소나무 훈연향이 배게 되었습니다. 차농은 시장에 싼 값에 내다 팔았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바로 그 차를 사겠다고 사람들이 통무관으로 몰려왔습니다. 녹차보다 진하고 달달하고 향기로운 붉은 차, 소나무의 훈연향이 더해진 차, 이로써 정산소종이 탄생하였습니다. 홍차는 찻잎을 따서(채엽) 비빈 후(유념) 공기와 접촉해 산화하도록 쌓아둔 후(산화 완전발효) 건조하는데, 이 홍차의 제다과정이 명나라 차농의 우연적 행위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홍차의 원조 통무관 정산소종은 푸젠성(福建省) 우이산시(武夷山市) 싱촌전(星村鎮) 통무촌((桐木村)에서 생산됩니다. 통무촌은 통무관(桐木關) 마을입니다. 통무관은 푸젠성(福建省)과 쟝시성(江西省)의 관문으로 우이산맥에서 가장 높은 황강산 근처에 있습니다. 통무관을 정점으로 사방 50km이내를 정산(正山), 즉 원산지 차산(茶山)으로 분류하며 원산지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소종(小種)'은 소엽종 차나무 잎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산소종이 고가로 유통되며 대유행하자 여기저기에서 정산소종을 모방한 차를 만들어내서 '정산(正山)'과 '외산(外山)'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통무관 정산소종을 음미해봅니다. 제가 선택한 차는 소나무 훈연향을 입히지 않은 무연 정산소종입니다. 본래 소나무 훈연향은 동목관 정산소종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나, 현대에는 소나무 훈연향이 나는 '유연(有烟) 정산소종'보다 훈연향이 나지 않는 '무연(無烟) 정산소종'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에는 통무관에 소나무가 많았고 유럽까지 이동해야하는 유통문제로 훈연하였으나, 현재 통무관은 중국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벌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굳이 훈연향을 입히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소나무장작을 실어 와야 하는데 차를 훈연하기 위해 대량의 소나무를 벌목해야 하는 환경문제 또 외부 소나무에 묻어올 수 있는 병충해문제 등으로 소나무훈연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설비와 교통이 발달한 관계로 훈연하지 않고도 신선한 정산소종을 유통할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훈연하지 않은 차가 좋다고 합니다.

차는 찻잎을 피워낸 환경이 중요합니다. 통무관은 융기와 침식에 의한 붉은 단하(丹霞) 지형에 전형적인 아열대 원시림으로 새와 곤충과 야생화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생태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난초꽃, 창포, 계화, 두견화와 수백종의 야생화가 피어 공기 중에 꽃향기가 떠다닙니다. 수백 년 된 차밭의 오래된 차나무를 동목관에서는 노총(老欉)이라 하는데, 마치 야생차나무처럼 인위적인 재배를 자제하고 동쪽에 몇 그루, 서쪽에 몇 그루 띄엄띄엄 펼쳐져 최대한 원시림 속의 자연환경에 어울리도록 보존되어 있습니다.

통무관촌에는 열 두 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대 백년 넘게 대대로 차를 만들어 온 차농의 집에서 전통제다법으로 수공제다한 특급 정산소종을 우립니다. 찻잔 속에 오롯이 담긴 정산소종, 홍갈색의 수색에 윤기가 영롱합니다. 달콤한 몰트향(맥아당향)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군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입안에 쫀쫀하게 단맛이 남습니다. 뒤이어서 이름 모를 야생화 향기가 아스라이 번지고 깊은 산운(高山韻)이 밀려와 명랑한 기쁨이 샘솟아납니다. 차를 마시며 차향을 음미하는 것은 아름다운 유희, 몸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희로애락을 떠나고 싶을 때 향기로운 정산소종 한 잔으로 구름 위의 기쁨을 느껴봐요.

〈잇다it茶 대표〉



瞬間空中結晶製鹽技術
동해바다 수심 605m
청정 해양심층수를 길어 올려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로
찰라의 순간에 수분을 증발
소금을 공중에서 눈처럼 내려
쌓이게 하는 첨단기술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엠큐눈소금

深層水의 미네랄을 가득담은
기적의 소금
(순간공중결정제염)



엠큐 눈소금의 특징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들어진 해양미네랄 100% 소금입니다.
- 청정 해양심층수를 마이크로필터로 걸러서 만들어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확인 소금입니다.
- 골다공증 예방,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 신경전달의 핵심 미네랄인 마그네슘,칼륨,칼슘,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화와 영양흡수를 돕는 나트륨, 염소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십가지 미네랄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건강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나트륨 성분의 체내 배출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트륨 축적의 위험성이 없는 소금입니다.

※500ml 생수에 소금3g을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구분	일반정제염	엠큐눈소금 (100g 당)	차이점
염화나트륨	99.52%	75.39%	24.13% 낮음
나트륨	38.99g	29.64g	9.35g 적음
마그네슘	10mg	3,893mg	389배 많음
칼슘	30mg	988mg	32배 많음
칼륨	20mg	992mg	49배 많음
기타	표층수	해양심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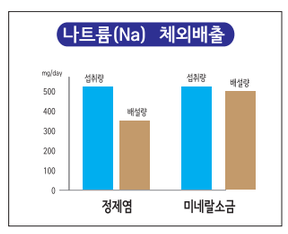
■ 자료 출처 명기
나트륨배출 촉진 : 출처 : KBS 생로병사의 비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출처 : 한국 분석과학연구소
소금성분 출처 : 한국기능식품연구원

수상 경력
- 2019년 9월 대평남종현 발명문화상 수상
- 2019년 10월 GTI국제투자무역박람회 금상 수상
- 2020년 6월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수상
- 2021년 7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끈 혁신리더 50인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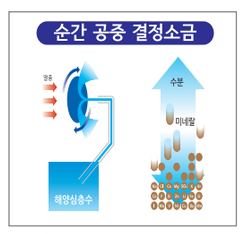
특허
- 10-1844017 : 해수에서 미네랄 분리추출
- 10-0885175 : 미네랄 워터와 미네랄 소금 제조기술
- 10-1681672 : 나무의 유용물질 함유 미네랄 소금제조기술
- 10-0548295 : 미네랄 해수소금제조장치 및 방법



미세플라스틱불검출 인증



나트륨배출 촉진확인



최첨단 특허제조기술



3g 스틱(60포)
건강용 제품 (3g 한 포 500ml 에 타 드세요)



엠큐눈소금 W 스틱 엠큐눈소금 W 굵은소금 1병
고운소금 1병으로 구성 건강고급제품



고운 소금 2병 굵은소금 1병으로 구성된 세트제품 요리등에 적합

문의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전 제품 롯데택배 무료배송 (도서산간, 오지 등 일부지역은 배송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음책 다시 읽기 **붓다의 명상법** ❶ 위빠사나와 사마타 수행

▶ 한줄 요약
바른 삼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으로 도달할 수 있다.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동전의 양면'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 수행법

마음챙김 명상은 붓다에 의해 고안되고 붓다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 닦은 명상법이다. 그의 명상법은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명상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그의 명상법이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알려진 배경에는 상좌부 불교 국가들에서 사마타 수행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퍼지고 위대한 수행선사들을 배출한 미얀마가 정치적 이유로 사마타 수행을 억압하고 위빠사나 수행을 장려한 상태에서 서구에 전해진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마타 수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마타는 원래 붓다의 등장 이전에 존재했던 요가적 명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가의 명상은 그 자체로 사마타 수행이며 위빠사나 수행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빠사나 수행은 붓다의 명상법에 고유한 부분이다. 사마타는 '고요하다' 라는 동사어근에서 파생한 말이다. 요가의 명상은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하기 위하여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몰입시키기 위한 집중 명상법이다. 요가의 명상은 마음작용의 끊어짐을 목표로 하는데 마음작용은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작용으로서 모든 형태의 번뇌와 무명 형성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요가 전통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입시켜 마음의 하나됨의 상태에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에 치중하는 요가 명상은 사마타 명상과 동일시된다. 요가의 목적은 이욕에 있는데 번뇌의 근본적 원인은 탐욕이며 마음작용도 탐욕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요가 명상에 의해 길러지는 사마타의 힘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도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의 힘이다.

그러나 붓다의 명상법에 포함된 사마타 수행법은 요가의 수행법과는 다르다. 두 가지 사마타 수행법의 차이점 문제는 긴 시간에 걸친 요가 전통의 변천과정과 그 과정에서 붓다에게 영향을 미친 요가 전통이 어떤 시기의 어떤 형태의 것인지에 대한 문화적 고찰을 요하는 복잡한 것이다.

이 맥락에서는 붓다에게 영향을 미친 요가에 초점을 맞추고 붓다의 명상법에 포함된 사마타와 위빠사나,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기법인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요가의 사마타 수행법과 붓다의 사마타 수행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요가적 사마타 수행과 붓다의 명상법에 포함된 사마타 수행은 서로 다른데 이것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이 다른 것에 기인한다. 붓다는 출가 후 상가 · 요가 수행자들을 찾아가 선정의 최고 단계에 이르는 요가 명상법을 배워 실제로 선정의 최고 경지를 체험하였다고 전해진다. 붓다 생존당시 붓다에게 영향을 미쳤을 요가 전통은 당시 상캬전통의 이원론적 무신론적 세계관을 수용하고 요가 수행을 중시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붓다의 등장 이전 시기의 철학사조를 반영하는 초기 우빠니샤드에는 범아일여 사상이 핵심사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념론적 일원론 사상에 대한 반발로 현실주의적 상캬 이원론 사상이 등장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초 · 중기 우빠니샤드에 나타난다. 붓다 가상캬 이원론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흔적은 그의 오온의 교의로 나타나는 세계관과 명상수행법에도 나타난다. 오온의 교의와 명상법에 물질 정신, 대상-마음의 이원론적 특징이 관통하고 있다. 오온의 교의는 2장 2절 정견 부분, 고성제를 다루는 맥락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붓다는 상캬 전통의 영향을 받아 무신론적이었다면 요가 전통은 유신론적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요가 전통은 붓다에게 알려지기 이전 시기에도 유신론적 배경에서 일원론 사상을 낳았고 붓다의 생존 시기 이후에는 점점 더 유신론적 특징이 강해져 무신론적인 상가 형이상학을 흡수한 채 독자적인 철학전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원론 사상을 낳은 요가의 명상법은 자기의식마저 사라진, 대상에의 완전한 몰입을 위해 호흡이나 신이라는 개념에 집중하여 고요함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붓다의 명상법의 사마타 수행은 대상 마음의 이원성의 상태에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영역)에 고정시켜 정신통일을 길러 고요함을 계발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통찰지를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붓다의 명상법의 위빠사나의 측면에 대해 알아보기로한다. 빨리어 vipassana는 접두사 vi(분리해서)와 동사어근 drs(본다)의 합성어로서 '분리해서 본다' 의 의미를 지닌다. 위빠사나는 도를 닦아(수행) 번뇌를 꿰뚫는 것을 의미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내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나아가 실상을 꿰뚫음으로써 해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무상, 고, 무아라는 삼특상을 통찰지로써 얻는 것이다.

요가수행과 다른 붓다명상
독자적 철학전통으로 발전
대상영역 유무로 위빠사나
사마타수행의 차이도 발생

따라서 붓다의 명상은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런데 붓다의 직설을 담은 경장을 통해 붓다의 명상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윳따니까야〉에 열반을 의미하는 무위법에 이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무위법에 이르는 길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앙굿따라니까야〉의 '삼매경' 에서 붓다는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설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닦았느냐에 따라 네 부류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붓다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얻은 마음의 삼매와 위빠사나 수행에 의한 통찰지를 모두 구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한다.

그러면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닦으라고 설한다. 결론적으로, 붓다의 명상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측면을 지니며 수행기법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인 것이다.

이 맥락에서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널리 알려진 붓다의 명상법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위빠사나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붓다의 명상법을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자신의 명상법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을 담은 대표적인 경으로 〈대념처경〉과 〈안반수의경〉을 들 수 있는데 두 경의 제목에 모두 sati라는 빨리어 용어가 쓰였기 때문이다. 사티는 영어로 mindfulness로 번역되고 한역어로는 마음챙김이 주로 쓰이는 추세에 있다.

붓다의 명상법의 핵심기법인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붓다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균형있게 모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수행법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라고 설한다. 상윳따 니까야에 나오는 〈삼매경〉에서 붓다는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 혹은 삼매도 얻었고 위빠사나의 높은 통찰지를 얻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퇴전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한다. 쉽게 설명하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 삼매를 계발하고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통찰지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 수행기법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혹자는 마음챙김은 사마타 수행법이고 알아차림은 위빠사나 수행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바야베라와경〉에 바른 삼매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사마타 수행은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위빠사나 수행도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이다. 태국의 아짠 차 스님 역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 통찰지가 계발된다고 한다.

마음챙김으로 한역되는 빨리어 sati는 '기억하다' 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로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 혹은 억념이다. 마음챙김 명상에 의해 수행자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달아나게 하는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재로 돌아와 '지금 여기' 머물게 한다. 기억하다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한 마음챙김은 경험의 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는 것을 잊지 않아 의식이 '지금 여기' 깨어 있도록 유지하는 수행이다. 따라서 마음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고 대상을 파지하고 대상에 확립하고 그래서 마음을 보호한다.

마음챙김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대상으로 객관화시켜 주시하고 경험의 장을 명확하게 하여 경험의 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통찰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신적 능력이다. 마음챙김은 경험의 장에 주의를 기울여 대상을 개념을 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한다. 번뇌를 대상으로 객관화시켜 알아차리는 수행에 의해 개념을 통하지 않고 법을 꿰뚫어 보고 지혜로써 깨닫기 위해서는 대상이 느낌 내지 에너지의 형태로 경험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음챙김 명상에 의해 열리는 인식의 영역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이다.

상빠자나(sampajna)는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한역된다. sam은 '함께' 를 의미하는 접두사, pa는 강조를 의미하는 접두사, 동사어근은 /ñā(알다)이다. 알아차림은 통찰지를 계발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통찰지를 계발하는 위빠사나 명상은 우리의 경험의 장에 마음의 초점을 맞춰 정신과 물질, 혹은 마음과 대상을 마음챙겨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을 정화시켜 통찰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개념을 통해 외부 세계를 알고 있는데 위빠사나는 개념적 존재를 연기법의 이치대로 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로 해체해서 법들의 특상인 무상, 고, 무아를 통찰지로써 터득하기 위한 수행이다.

이자연 씨는… 인도 바나라스힌두대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독일 마인츠대에서 후설현상학을 전공해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인도 유학 당시 위빠사나 명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다.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한생각에 우주를 쌀 수도 있고 우주를 굴릴 수도 있다

하루살이로 살라 하심은

질문 요즘 많은 마음공부 하시는 분들이 현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큰스님 법문 중 하루살이로 살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여러분에게 "하루살이로 살라!"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랑을 한다고들 모두 말은 잘들 하죠. "아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아들을 사랑해." 뭐, 누구나가 그저 만나서 좋으면 그냥 사랑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도 찰나 사랑이 돼야지 착을 두고 사랑을 한다면 그릇이 비지를 못해서 진짜 사랑을 못 해요. 마음도 찰나 마음을 전하면서 끝없이 연결되는 원인이, 찰나찰나 이렇게 만나고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건 무심(無心)의 도리이고, 말과 말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건 유심(有心)의 도리예요. 무심과 유심이 어떻게 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둘입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속일 수가 없지만, 속이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말로는 속이는 게 많다는 얘기죠. 하지 못할 말이 많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은 진짜로 내가 한 일과, 내가 하고 돌아가는 일과, 내가 말한 거를 전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그 속마음이 바로 우주 천지하고도 직결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만물과도 서로 직결이 돼 있고 일체제불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마음으로 속이려고 해 봤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게끔 받고, 알고 지은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다 이 소립니다.

찰나 사랑, 찰나의 행,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도리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묘한지 여러분이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다면,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대로 진실하게 행한 도리만큼은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얼른 쉽게 말해서 "내 모습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너의 마음속에 안테나를 세운다면 그 주장자로 인해서 내 주장자와 네 주장자가 둘이 아니니라. 그래야만이 내 주장자를 찰나에 너를 줄 수도 있고 찰나에 네 주장자가 나한테 올 수도 있다."라고 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찰나에 통신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세상만사가 다 어지러운 것 같지만 아주 간편합니다. 뭐, 내일 걱정, 어저께 걱정, 어저께 후회, 앞으로 살아나갈 걱정 이런 거를 하느라고 모두 야단들인데요, 사실은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찰나찰나 찰나 생활로 살아라' 하는 건 정말이지 영원한 삶을 갖다 주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찰나 사랑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둘이 아니게 진정으로, 자비로써 그냥 만났다가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야죠? 거기다 착을 두면 진짜 사랑을 진짜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공 뿌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푸르르게 살려면 다 뿌리에게 맡겨라. 뿌리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위 나무는 모든 에너지를 또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서로서로 상응하면서 이렇게 푸르르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나무가 딴 뿌리의 이름을 찾거나, 딴 나무의 형상을 믿거나 이런다면 그건 기복이지 공덕이 될 수가 없죠. 기복으로 하면 에너지가 그냥 자기 나무로, 딴 뿌리에서 내 뿌리로 올 수가 없죠.

물론 내 나무의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뿌리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낼 수 있지만, 이름과 형상을 찾아서 밖으로 헤매다 보면 공덕은 하나도 없다고 달마 대사도 말씀하셨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가 저쪽 나무를 찾고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소나무가 향나무를 찾으면서 '향나무여, 향나무여!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에너지를 좀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 향나무에서 소나무로 에너지가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 나무의 뿌리만이 자기 나무를 위해서 올려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무는 잎새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뿌리에 매달려서 살면서도 뿌리를 무시한다 이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쏭달쏭하게 생각하고 못 믿어서 그렇죠. '뿌리만이 나무 전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못 믿어서요.

먼저 들어왔고 먼저 배웠고, 나중 배웠고 나중 들어왔고 이걸 떠나서, 진짜 물리가 터져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라면,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둘이 아닌 도리에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며 바로 지름길이다 이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했던 말 되하고 했던 말 되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마디 듣거나 물 한 모금 마시고 손 한 번 튕기는 걸 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되풀이하게 되죠.

왜 절에서 종을 울리는 줄 아십니까? 영혼들을 전부 불러서 종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이 종소리를 듣고 영혼의 귀가 뜨이고 눈이 뜨여서 이 도리의 섭류를,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섭류를 알아라. 네가 이거를 알아야 영원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소립니다, 그게.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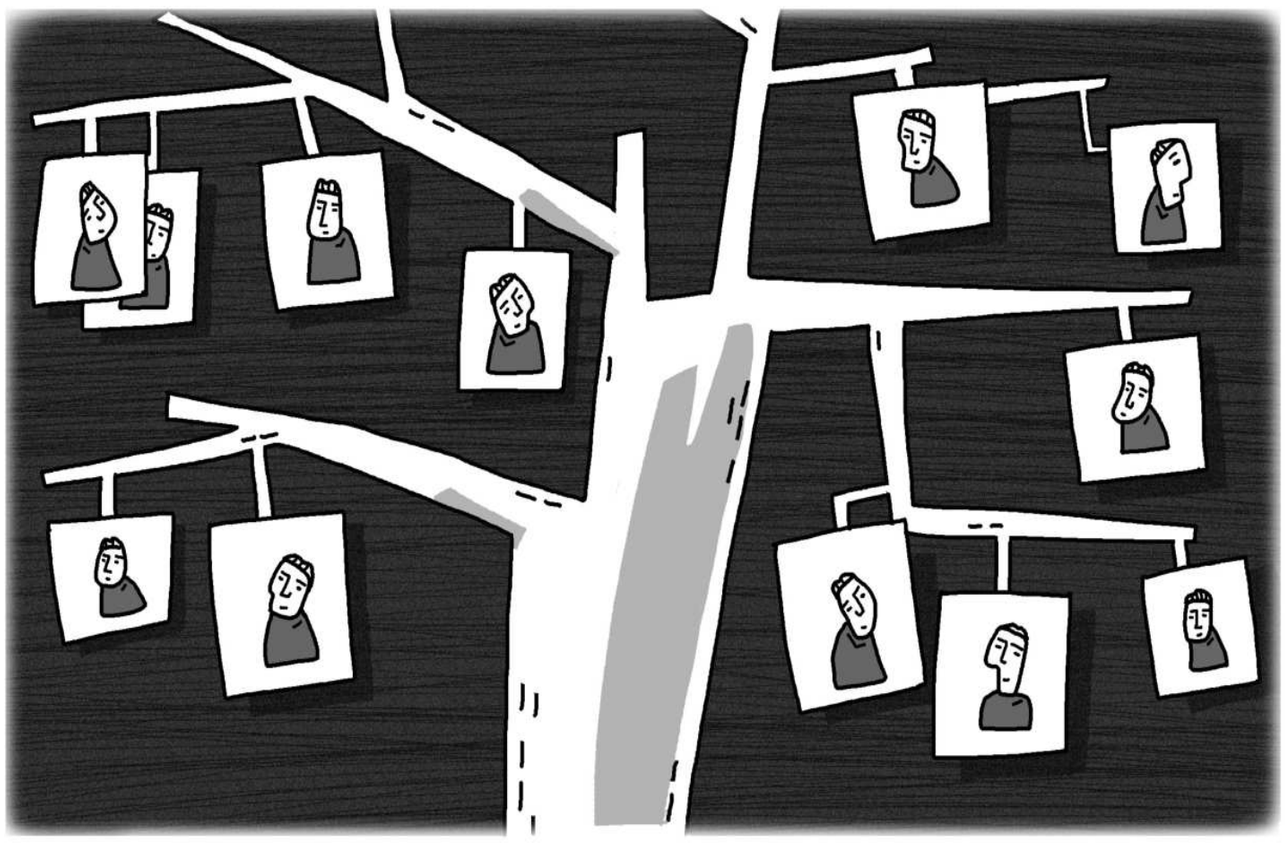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번뇌 망상으로 집중이 안 돼요

질문 나의 참나, 주인공을 발현해 보려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번뇌, 망상이 일어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정진할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것저것, 잎이니 가지니 하지만 뿌리만 알면 나무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뿌리를 모른다면 윗가지와 잎새만 알지, 뿌리는 모르거든요.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마다 잎새가 달렸는데, 그 잎새는 수효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려면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효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하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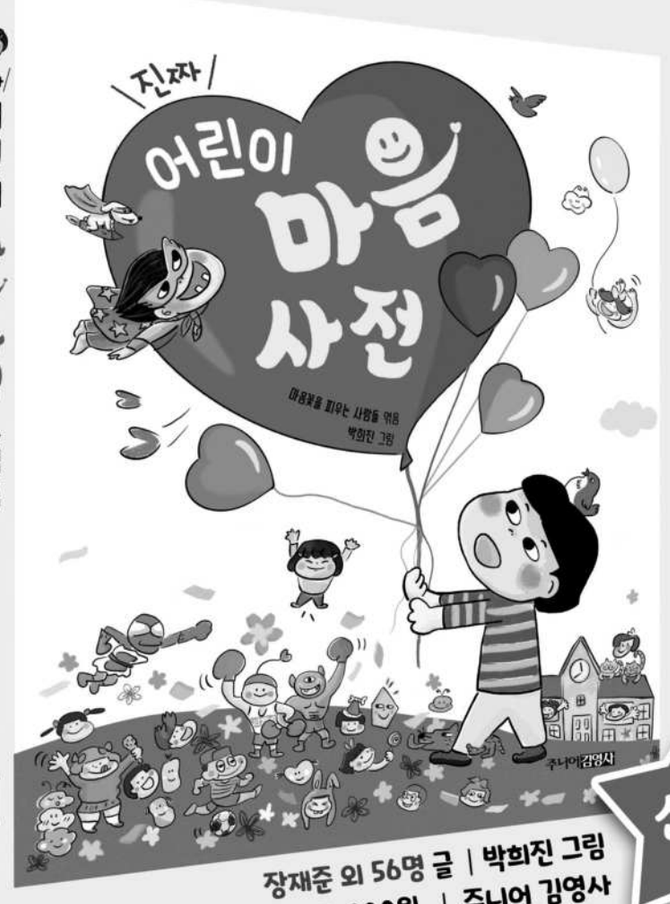
한생각에 우주를 쌀 수도 있고, 우주를 담을 수도 있고, 우주를 굴릴 수도 있고, 우주를 들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그릇 한마음이라는 이 뜻은 정말이지 뿌리 없는 기둥이요, 잎새 없는 바로 불바퀴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 모두가 거기에서만 배출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전력을 끌어서 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뼈저리게 건건이 괴로움을 주

☞ 22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신간!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

그릇을 항상 비우면서 찰나찰나 찰나 생활로 살아라

☞ 21면에서 계속

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의해서 그게 업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건건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것 없고 누구 원망도 할 것 없이 내 탓으로 돌렸을 때, 바로 나로부터 그 일을 벌여 놓은 거니까 나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누가 갖다 주고 누가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숙명통 컴퓨터라고 했고, 그 컴퓨터에 달려 있는 시스템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 있다는 그 사실, 과거에 살던 마음과 지금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게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진짜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따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화두를 받아서, '무(無)' 자 화두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린 한 단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뭣고?' 하고 가는 것보다도…, 뭐긴 뭡니까? 그대로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나와서 공(空)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화두며 공했다. 공했으니 그 무엇을 바깥으로 찾으랴. 과거는 짊어지고 나왔고 미래는 가지 않았으니 바로 현재의 여러분인데, 그 여러분이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공한 자체가 바로 그대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주인공만이 주인공이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다.' 또는 '네가 있다는 걸 너만이 증명해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觀)' 입니다.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봅니다. 또 망상이나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때문에, 망상 때문에 나는 공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답답한 것이 나온다 이럴 때도 그런 데에 끄달리지 마세요. 팥죽 솥에서 팥죽 끓을 때에 방울방울 지어서 나오듯이 모두 한 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그렇지 어찌 그게 망상이겠습니까? 수없는 중생들과 인연으로 인해 만나서 자기를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직원과 같은데, 어떻게 직원을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직원에게서 어떠한 말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답답함이 나오더라도 그건 자기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이 답답해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말리지 말고 속지 말고 '아, 답답한 건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 한마음 속에서 말이야.' 할 때가 바로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그 찰나입니다. 입력을 다시 해 보십시오, 지워지지 않나.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뼈다귀 한 무더기, 거기다 왜 절을 했던가. 미생물에서부터 거쳐 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 될 때가 없었고 자식이 안 될 때가 없었고 형제가 안 될 때가 없었으니, 지금의 우리 육(肉)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모두가 부모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식이라 이 소립니다. 알고 보면 한 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한 찰나에 한 철을 겪고, 우리들 그 잎새는 어디로 가랑잎이 돼서 굴러가다가 또 한 번 보이지 않는 데로 굴러서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볼 때에, 내 마음이 흡족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말이지 눈물겨웁도록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마음은 이심전심이요, 몸은 한 몸이요, 움죽거리는 것도 다 똑같고 생명도 다 똑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쫓고 쫓기면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몸 벗기도 어렵습니다. 아파서 3년이고 2년이고, 왜 그렇게 앓는 줄 아십니까? 내 몸 벗기가 그렇게 어려워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 바깥에 있는 그 모든 물질에 착을 두지 말고,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지간이나 이런 것에도 착을 두지 마시고, 내 탓으로 돌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 탓이야, 네 탓이야' 하고 '저놈의 새끼 탓이야, 네 탓이야' 뭐, 이거 이루종차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탓을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얼마나 살다가 가겠다고 그렇게 서로 잘못했다고 으르렁드르렁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끌고 나가야만 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이 몸이, 모습을 가지고 철모르고 얼마나 살 것이며 또 철들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철들어서 조금 살다 보면 벌써 머리는 희뜩희뜩하게 다 쉬어갑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의 공부를 진실하게 해서 모르고 넘어가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無)의 세계의 50%를 모르니까 유(有)의 세계의 50%만 알고 살게 되죠. 그래서 가섭이 아난더러 "너는, 말하자면 무의 세계, 무심(無心)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무심과 유심이 한데 합쳐진 이 크나큰, 광대무변한 도리를 모르기에 한 점의 글씨도 못 쓰니까 자격이 없다." 하고 내쫓았죠. 우리가 이 도리를 안다면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항상 말을 했듯이 어디에 세워 놔도 참으로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무마하려면

질문 평상시에는 주인공에게 관하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잘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습으로 인한 것일까요? 그거를 무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그냥 다 정말이지 진짜로 놓을 수 있다면 과거가 현실로 그 당시에 찰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킬 수도 있고 그거를 관할수도 있지만,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 믿으면 과거가 여러분 앞으로 오더라도 이걸 해결을 못 한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게 진 빚이라면 진 빚대로 그걸 갚아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될 때도 있고 그런 거는 그 불가부득 해야 할 문제, 과거에…. 얼른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합니다.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몸체에 뼈가 없고 아주 그냥 흔덩흔덩하는 아이죠. 드러누워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부모들이 '어휴, 이거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이 생명이 살아나가나.' 하고선 절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하니깐 지금 빨리 가게 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애한테도 이득이고 우리 식구들도 살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걔한테 문서가 지어진 그거는 저승을 가야 그 문서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저승도 한 발짝이요 천당도 한 발자국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천리만리 아예 까마득한 문제죠. 우리가 마음공부 해서 아는 길을 아는 사람들은 한 발자국이 거기지만, 온 사이도 없고 간 사이도 없이 할 수 있지만, 거길 갔다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쪽지 하나를 얻어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애를 해결을 할 텐데 그거 쪽지를 얻기 위해서 누가 저승엘 갑니까? 천상 심부름하는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나도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내가 있는 게 없이 있기 때문에 화하려면은 무지하게 화하고 없어지려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쪽지를, 둘이 아닌 까닭에 가면 쪽지가 나올 수 있죠? 쪽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쪽지를 받아서 없애 버리니까 그때 애가 갔습니다. 뼈가 없고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재생을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듯이 그 모든 과거에 있던 일이 현재 여러분의 문제로 돌아와야만이 주인공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과거 일이 돌아와서 여러분 앞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진짜로 믿어야 그 꿈도 화하지만 모습도 화해지고 다 둘 아니게 없어질 텐데 말입니다.

정말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어서 내가 없다면, 개개인이 전부 내가 없다면 진짜로 그거는 화해서 그것이 다 말갛게 물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하죠. 잘들 공부하셔서 하나도 언짢지 않게 앉아서 그냥 천리만리를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게끔 모두 성의를 베푸십시오.

친구를 돕고 싶어요

질문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 조그만 식당을 하다가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친구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도 살림이 어려워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니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그래서 이 마음공부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면, 캄캄하다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하나뿐이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첨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둘이 아닌데 어째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구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쓸 수 있으니 마음 놀이입니다. 마음으로써 하는 거니 마음으로써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요기가 아프고 저 일이 안되고, 무슨 돈을 줬는데 다 떼이고, 보증을 섰는데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둥 이런 말을 할 때면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쩌면들 저렇게 관습에 세뇌가 돼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 하구요. 아무리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아요. 능하게 좀 한 발짝을 떼어 놓지를 못해요. 그 어린애가 한 발짝 떼어 놨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너 한 발짝 떼었구나! 너 걸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심정일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해도 떼어 놓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결을 못 해? 해결을 못 할 일이면 하질 말지, 애당초에. 아주 줄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집을 잡혀서 담보를 서? 부자지간에도 담보를 설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욕심이거든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욕심에 의해서 담보를 잡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집을 탕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적게 먹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또. 내 몸뚱이가 집이라면 나는 오막살이 토굴이에요. 허허허. 빌딩이나 세련되고 좋은 집이 못 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한생각이 넓으면 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구요.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마음이 필요합니다. 울고 짜고 해 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몸에 병이나 들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 논단

가을의 문턱에서…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아침저녁 선선한 가을바람 불어
가야산 곳곳엔 단풍 물결 '넘실'
나무, 수풀 각자 색으로 물들어

법보전 '원각도량하처…' 주련은
깨달음이 먼곳 있지 않음을 알려
우리 행복도 평범한 일상에 있어

오늘의 가을, 나에게 유일한 하루
자신의 단풍으로 물든 오늘 살자

식지 않을 것만 같던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도 어느새 흘러가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밤낮의 시원한 공기가 가을의 문턱을 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요즘이다.

필자가 지내는 가야산에도 며칠 전부터 가을의 기운이 내려와 주위를 물들이고 있다. 홍류동 계곡 앞에는 붉은 단풍이 서서히 그 당당함을 드러내고, 장경판전 뒤의 단풍은 수줍은 듯 노오란 표정을 보인다. 성철 스님 부도탑 주변은 갈색의 가을 물결이 춤추고, 마애불 가는 길은 아직 초록의 싱그러움을 내뿜는다. 이처럼 이제 가을의 문턱을 넘으며 가야산도 붉고 노랗고 파란 단풍들이 각각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산과 공원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서다. 우리가 기대하는 가을의 모습은 각각의 나무와 수풀들이 저마다의 가을 옷을 보여주기에 그 아름다움이 극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가을이라고 해서 똑같은 빨간 단풍이 된다면 그 모습은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각자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담아 저마다의 색과 성품을 내비추기에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계절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지금도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1년에 한 차례 가을의 옷을 입듯이 우리의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단 한 차례만 오는 오늘이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을이고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해인사 법보전에는 '원각도량하처(圓覺道場何處) 현금생사즉시(現今生死卽時)'라는 주련이 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생사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다.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막상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 순간을 떠올려보면 지극히 평범하다.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에 함께한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언젠가 무엇인가에 의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둘러싼 공간과 순간을 바로 볼 때 그토록 찾던 행복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행복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을 쫓아 그것을 따라한다고 그 삶이 자신에게 투영되는 것이 아니다. 가을의 단풍과 같이 저마다의 자존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색을 드러낼 때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일상이 공유되고 다른 이의 삶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자신을 더욱 가꾸고 소중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차 자신들의 자존감을 잃고 남의 삶과 그 일상만을 쫓으려 하는 모습이 심해진다. 주위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이라면 자신에게 필요 없어도 유행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사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쉽게도 더욱 큰 불만족과 허전함만이 남게 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도 정작 입을 옷이 없고 쓸 만한 것이 없다고 버릇처럼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색을 내뿜고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러한 자신을 남과 같이 만들려고 맞지도 않는 옷을 입히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색깔이 무슨 색이고, 삶의 어디쯤에서 무엇을 향해 가는지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 자존감이 없는 삶에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다운 삶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속의 자신과 주위의 모든 것들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찾는 행복이 눈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의 가을은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하루이다. 마음껏 가을을 즐기며 자신만의 단풍으로 물든 오늘을 살자.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초발심시 변성정각

한 환자가 법당에 내려와 하는 첫 마디가 "스님 저는 죄가 많은가봐요"였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2년 사이에 4번의 수술과 자궁암을 비롯하여 유방암, 갑상선암까지 3개의 암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정말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고생 많으셨네요"하고 위로하자 환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암이라는 병명을 듣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암수술을 한 환자들의 5인실 병실의 밤풍경은 낮과는 사뭇 달라요." 자궁 적출하는 수술을 하고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매몰되어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은 흐느끼는 환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환자는 온몸에 암이 전이되어 손을 댈 수도 없는 환자도 있었고, 어떤 환자는 암 3기라는 소리를 듣고 좌절에 빠진 환자도 있었다. 게다가 자신보다 젊은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종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 있다 보니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스님들의 말씀도 듣게 되었는데, 특히 108배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으면서 온 몸의 세포가 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단다.



그림 · 최주현

"저는 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특히 방사선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면 여기저기 가렵기도 하고 몸이 뒤틀리는데 그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에 집중하고 있으면 참을 수 있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까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다행히 0기에서 1기 사이라고 합니다. 암이 왜 저는 3개나 있는 걸까요?"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기에 발견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환자는 나와 눈을 마주친 후 의사도 같은 말을 했다고 되뇌이며 눈물을 훔쳤다. "뜻도 모르고 열심히 부른 염불 덕분에 가피를 입었네요"라고 내가 큰 소리로 말하자 환자는 '가피'가 뭐냐며 눈이 동그래졌다.

'초발심시 변성정각(初發心時 便成正覺)'이 떠올랐다. 뜻도 모르고 불렀지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른 그 간절함과 순수함이 문득 깨달음을 이루듯 기적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불교계, '직지'를 방치할건가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지와 관계없이 인쇄술 등 서지학적인 차원의 연구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불교계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지〉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오직 한 권만 남아있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직지〉가 고려시대 백운화상이 선불교의 정수를 담아 저술한 불교서적이며 성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중들은 많지 않다. 〈직지〉의 무궁무진한 가치 중에서도 어찌보면 핵심적일 수 있는 부분임에도 사실상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지〉는 고려 시대 백운화상의 한평생 수행의 결실이 담긴 책이다. 이를 법맥으로 전승하기 위해 경전과 선어록 등에서 핵심을 추려 저술했고 제자들이 금속활자에 새겼다. 과거 7불과 서천의 조사, 중국 조사들의 선기가 담긴 어록들이 깨달음의 지침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자들조차 성보로서 〈직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불교계가 〈직지〉에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닐지 돌아봐야 한다. 선불교의 언어는 대중들이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말 번역을 토대로 대중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의 관심도 주목해야 한다. 각국 언어로 번역해 더 많은 세계인들이 〈직지〉에 담긴 본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이야말로 한국불교 세계화를 견인하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다.

봉선사 참선반 10주년에 부쳐

남양주 봉선사의 참선반 '선우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불교계의 수행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가, 과거와 달리 수행모임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전국 곳곳의 사찰과 수행모임을 중심으로 참선수행이 가열차게 이어졌다. 재가불자들은 스님 못지 않은 수행력으로, 도반과 수행에 매진하며 깨달음을 향한 정진 열기가 그야말로 뜨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둘 사라져 소식을 알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빠르게 바뀌는 재가불자들의 수행풍토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한 공간에 모여 서로를 독려하며 가부좌를 트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참선이란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항상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참선수행을 이어가길 바란다."

봉선사 선우회 창립을 주도했던 정수스님의 당부다. 이는 10년 전 선우회를 발족할 당시 세운 원력이자 본 뜻이기도 하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직시하며 변화를 이끄는 수행을 지속하다보니, 어느새 선우회는 수행 뿐 아니라 사중 일에도 발벗고 나서며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실천력까지 갖췄다. 수행과 회향이 둘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10주년을 맞이한 봉선사 선우회는 흔들림 없는 수행원력으로 개개인의 깊이를 더해나가고 있는 동시에, 수행의 대중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선우회 회원들의 묵직한 발걸음이 더 많은 사찰들에게 전해져 한국불교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되길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7 주년을 축하합니다
휘몰아치는 여러분의 정보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회원을 관리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보안서비스 개선
+ 시스템 보안관리
+ 서버운영 및 관리
+ 업무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 PC 유지보수
IT PLUS + ONE ELSWIVER
http://www.elswiver.com http://www.itplusone.com
Venture for Tomorrow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IT PLUS + ONE 으로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IT PLUS + ONE 은 (주) 엘스위버의 정보보안 및 전산 통합관리 서비스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ELSWIVER IT PLUS + ONE
©Copyright 2018 ELSWIVER co.Ltd, ALL RIGHT RESERVED

현대불교신문

“27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